

총.만.국 커뮤니티

www.chongmangug.co.kr

정 오 표
교재 구입
오류 신고
내용 문의
\$현금 이벤트\$

- *문제를 풀기 전에 반드시 수정 사항을 다운 받아 보길 바랍니다.
- *오직 총만국 커뮤니티에서 교재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 서점에서 구입 불가)
- *문제 혹은 해설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문의하면 답변해 드립니다.
- *단 한 글자의 오타라도 신고해 주세요.
(★1건 당 1,000원 현금 바로 지급)
- *교재에 대한 리뷰 및 후기를 기다립니다.
(★5,000~20,000원의 현금 바로 지급)

*교재명: 총력만능국어 III
평가원 6·9월 (상)편 [해설집]
*교재 버전: 2017-01
*펴낸곳: 최군 출판
*지은이: 최영수
*정가: 15,000원

차례

총만국 III

평가원 6·9월 (상)편

1회: 2017 9월.....	1P.
2회: 2017 6월.....	47P.
3회: 2016 9월 A.....	98P.
4회: 2016 9월 B.....	140P.
5회: 2016 6월 A.....	184P.
6회: 2016 6월 B.....	231P.
7회: 2015 9월 A.....	279P.

총만국 IV

평가원 6·9월 (하)편

1회: 2015 9월 B
2회: 2015 6월 A
3회: 2015 6월 B
4회: 2014 9월 A
5회: 2014 9월 B
6회: 2014 6월 A
7회: 2014 6월 B

총만국 I 수능 (상)편

1회: 2017 수능
2회: 2016 수능 A
3회: 2016 수능 B
4회: 2015 수능 A
5회: 2015 수능 B
6회: 2014 수능 A
7회: 2014 수능 B

총만국 II 수능 (하)편

1회: 2013 수능
2회: 2012 수능
3회: 2011 수능
4회: 2010 수능
5회: 2009 수능
6회: 2014 예비 수능 A
7회: 2014 예비 수능 B

기출은 진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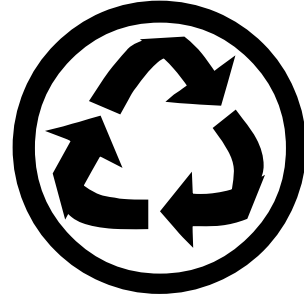
수능의 시작과 끝은 기출!
출제 경향이 바뀌어도
기출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총만국 시리즈
항상 곁에 두고 공부합시다!

시중 교재에서 절대 볼 수 없는, ★총만국 시리즈 특징★

1. 고 퀄리티의 자세한 해설
2. 모든 문제 및 선지의 정답 및 오답 근거 분석
3. 문제 풀이의 (팁 & 법칙) 최다 보유
4. 문제와 관련된 기본 이론 제공
5. 각종 통계자료 최다 제공
(등급컷, 정답률, 선지별 선택률, 오답률 top 순위 등)

마르고 닳도록, 마더텅, 자이스토리, 매삼비 등
본 교재보다 더 마음에 드는 해설의 교재가 있다면
바로 환불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N회독 시스템



- 1회독: 정답을 신속히 찾는 데 중점
- 2회독: 정답 및 오답의 근거를 철저히 분석
- 3회독: 해설의 70%이상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함

- 1회독하면 30%를 알게 되고
- 2회독하면 60%를 알게 되며
- 3회독하면 80%이상 내 것이 된다.

1회독: 제한시간 내에 정답을 신속히 찾아야 하며 가능하면 한 회 차를 80분 동안 한 번에 풀 길 권한다.

(시간 제한성의 실전 감각과 등급컷 확인 용이)

2회독: 정답을 찾는 공부라 아니라 시간제한 없이 정답과 오답의 근거를 지문에서 정확히 찾고 해설과의 유사성을 판단해야 한다.

3회독 이상: 정답을 찾기까지의 사고 과정과 문제 풀이와 관련된 지식, 팁, 법칙 등 해설의 70%이상을 설명 혹은 메모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전 회독의 단기 기억력 효과를 최소화하고 수능 전반을 살펴보기 위해서, N회독은 한 교재를 즉시 반복해서 보는 것보다 총만국 시리즈의 모든 교재를 전체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N회독을 위해서는 별도의 문제집이 더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있던 교재 연필로 풀고 지워서 다시 풀기
기출 문제 다운 출력
총만국 문제편 만 재구매 등

1회

2017 9월 평가원

정답

1. ①	2. ②	3. ⑤	4. ⑤	5. ④
6. ④	7. ③	8. ③	9. ⑤	10. ③
11. ②	12. ②	13. ③	14. ①	15. ⑤
16. ③	17. ④	18. ④	19. ④	20. ③
21. ④	22. ③	23. ④	24. ⑤	25. ①
26. ⑤	27. ④	28. ④	29. ④	30. ②
31. ⑤	32. ②	33. ⑤	34. ④	35. ⑤
36. ①	37. ⑤	38. ⑤	39. ②	40. ⑤
41. ⑤	42. ①	43. ①	44. ④	45. ①

등급컷

등급	원점수	비율(%)
1	90	4
2	83	11
3	75	24
4	66	40
5	54	61
6	40	77
7	26	89
8	15	97

영역별 평균 정답률

영역	평균 정답률
종합	70.0%
화법+작문	88%
문법	58%
독서 (비문학)	59%
문학	75%

오답률 TOP 7 문항

순위 (오답률)	문항 · 영역	제재	평가원 4개년 중
1위(74%)	36번 사회	사단 법인	1위
2위(69%)	33번 과학	열역학	2위
2위(69%)	39번 어휘	.	2위
4위(66%)	28번 기술	콘크리트	4위
5위(59%)	15번 문법	중세 국어	7위
6위(57%)	38번 사회	사단 법인	12위
7위(56%)	35번 사회	사단 법인	14위

※1~2, <강연>

1. <화법>

#말하기 방식 #질문의 유형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97%	①	②	③	④	⑤
	97%	1%	1%	1%	0%

◆정답 ①

*1)여러분, 꽃을 먹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채스민 차 드셔 본 분은요? [2문단]

*혹시 2)꽃을 넣은 전통 음식을 먹어 본 학생이 있으면 손을 들어 볼까요? (손을 든 학생을 가리키며) 네, 3)어떤 음식을 먹어 보았나요? [3문단]

⇒질문1~3)을 통해 청중의 경험을 이끌어 내어 강연의 내용(→ 식용 꽃)과 연결 짓고 있다.

*장미 꽃잎을 올린 샐러드가 참 예쁘지 않습니까?
→설의적 표현: 장미 꽃잎을 올린 샐러드가 참 예쁘다!

※다양한 질문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자!

- ㄱ. 상대에게 정보 요구 (평저 구조가 무엇인가요?)
- ㄴ. 자신의 이해여부 확인 (우리나라에 적합한 구조라는 거죠?)
- ㄷ. 상대의 이해여부를 확인 (희토류에 대해 이해되셨나요?)
- ㄹ. 상대의 배경지식 확인 (이건 어떤 원리인지 알고 있나요?)
- ㅁ. 상대의 호기심 유발 (결과가 궁금하시죠?)

★2016 수능 '질문' 관련 문제의 정답 사례!

[2016 수능 A 1번 문제의 정답]

*진행자는 해설사가 말한 내용이 진행자 자신의 경험과 관련이 있는지 질문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2016 수능 A 3번 문제의 정답]

*청중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중에게 질문을 한 뒤 반응을 살피고 있다.

[2016 수능 B 7번 문제의 정답]

*글의 주제와 관련하여 상대방의 답변 내용과 관련된 추가 정보를 요구한다.

☞2016 수능 한 시험에서 '질문' 관련 문제가 3문제나 출제되었고 그것도 모두 정답 선지로 배치되었다! 좀 더 꼼꼼히 공부하고 문제에 질문과 관련된 항목이 나오면 높은 정답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문제에 접근하자!

◆오답 풀이

②

⇒강연 중간 중간에 자신이 말한 내용을 요약한 것은 없다.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화법 상황에서 그 중간 중간에 자신의 말을 요약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요약', '강조', '당부' 등의 내용은 보통 마지막 부분에 나오기 마련이다.

③

⇒설명 대상에 대한 역사적 사건을 제시한 것은 없다.

"부적절한 선지를 너무 엉뚱한 것으로 설정한 것인데 이는 그냥 문제를 쉽게 하려는 의도밖에 안 보인다"

▶'역사'와 관련된 것이라면 지문에 연도를 나타내는 숫자가 나오기 마련이다.

④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요리 연구가 ○○○입니다. [1문단]

⇒자신의 이름을 밝히며 인사만 한 것이지 과거 경력을 소개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과거 경력을 밝혔다면 강연의 '신뢰도'는 올라갈 것이다.

※다양한 평가 기준의 척도를 알아보자

- ㄱ. 타당성: 사물의 이치에 맞는 옳은 성질
- ㄴ. 합리성: 이론이나 이치에 합당한 성질 →(상식적)
- ㄷ. 객관성: 언제 누가 보아도 그러하다고 인정되는 성질
- ㄹ. 공정성: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올바른 성질
- ㅁ. 정확성: 바르고 확실한 성질
- ㅂ. 신뢰성: 굳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성질

☞정확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공정하게 의견을 제시하면 의견의 타당성이 높아져 '합리적이다' 라고 할 수 있고 그 의견에 신뢰가 간다.

⑤

*'맛있는 꽃'이라는 강연 제목에서 짐작하셨을 텐데 1)오늘 제 강연은 먹는 꽃, 즉 식용 꽃에 대한 것입니다. [2문단]

⇒강연 내용에 대한 언급1)은 있어도 진행 순서를 안내한 것은 없다.

▶진행 순서는 첫째, 둘째나 혹은 처음, 다음 등 순서를 나타내는 말을 통해 드러난다.

2. <화법>

#강연 #학습 활동지 #듣기 활동 #이해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91%	2%	91%	5%	1%	1%

◆정답 ②

㉠진달래꽃과 철쭉꽃의 형태적 차이점은 무엇일까?

⇒㉠에서는 단순히 진달래꽃과 철쭉꽃의 형태적 차이점을 궁금해 하는 것이지 들은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점검하는 것은 아니다.

☞ 들은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점검하려면, 들은 내용을 다양한 자료(관련 도서 및 인터넷 자료)에 비추어 확인하는 활동이 있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듣기 전>

- ㉠) 어떤 꽃을 먹을 수 있을까?
- 2) 꽃을 재료로 하는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

<강연을 듣고 정리한 내용>

- ㉢) 꽃을 재료로 한 음식: 꽃잎 차, 샐러드, 화전 등
- 4) 식용 가능: 장미꽃, 팬지꽃, 호박꽃, 진달래꽃, 국화꽃

⇒㉠과 ㉢을 함께 고려할 때, 듣기 전에 떠올렸던 질문에 대한 답을 강연에서 찾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질문 1)은 4)에서, 질문 2)는 3)에서 각각 답을 찾을 있음.

③

*그러니 꽃을 먹기 전에 1)독성이 있는 꽃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4문단]

*또한 꽃에는 2)농약이나 오염 물질이 묻어 있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끝문단]

⇒㉢은 강연자가 직접 언급하지 않은 내용으로 독성 혹은 농약이나 오염 물질을 주의1~2) 하라는 강연 내용을 적용한 것이다.

④

㉠) 동아리 행사로 무엇을 할지 아직 정하지 못해 →(문제점) 걱정했는데, 2)꽃을 재료로 한 음식 만들기 →(해결점)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에서는 들은 내용2)을 자신의 문제1) 해결에 활용하려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에서는 들은 내용을 정보 간의 관련성이 드러나도록 범주화(→식용 가능/식용 불가)하여 정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범주: 동일한 성질을 가진 부류나 범위. →구분.

※3~5, <토의>

3. <화법>

#반언어-비언어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94%	2%	1%	2%	1%	94%

◆정답 ⑤

*학생2: 좋은 생각이야. 그렇게 하자. 1)<연설 마지막>엔 친구들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하자.

⇒㉠<토의>에서는 ㉠<연설의 마무리>에서 친구들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마무리 하자1)고 했을 뿐, 비언어적 표현 방법을 논의하는 것은 아니다.

※반언어와 비언어에 대해 알아보자!

- ㄱ. 언어적 표현: 문자 혹은 음성 언어
- ㄴ. 반어적 표현: 억양, 고저, 어조, 속도 등
- ㄷ. 비언어적 표현: 손짓, 몸짓, 표정, 옷차림 등

☞ 비언어적 표현이 반대로 언어적 표현의 의미를 약화시킬 수도 있다.

엄마: 이 장난감은 동생에게 양보할 수 있지?

아들: (시무룩한 표정으로) 네...

→(긍정의 대답이지만 비언어적 표현이 그 의미를 약화시킴)

◆오답 풀이

①

*학생1: 우선 연설을 할 장소와 1)연설을 들을 친구들의 특성을 감안해야 해. 연설 장소가 넓은 강당이고, 2)주제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제각각인 친구들이 대상이니 인기 가요를 틀어 친구들의 주의를 끄는 게 어떨까?

⇒㉠<토의>에서는 ㉠<연설>을 들을 '청중'의 특성이 고려1~2)되고 있다.

②

*학생1: 우선 1)연설을 할 장소와 연설을 들을 친구들의 특성을 감안해야 해. 2)연설 장소가 넓은 강당이고, 주제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제각각인 친구들이 대상이니 인기 가요를 틀어 친구들의 주의를 끄는 게 어떨까?

⇒㉠<토의>에서는 ㉡<연설>이 행해지는 공간적 상황1~2)이 고려되고 있다.

③

*사회자: 그럼, 이제는 사이버 언어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하자는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1)적절한 근거와 그 제시 순서에 대해 논의해 보자.

⇒㉠<토의>에서는 ㉡<연설>에서 다른 근거의 제시 순서가 논의되고 있다.

④

*사회자: 지금부터 우리가 할 연설에 대해 토의해 보는데 먼저 연설을 시작할 때 친구들의 1)주의를 집중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 볼까?

*사회자: 그럼, 이제는 사이버 언어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하자는 우리의 2)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한 근거와 그 제시 순서에 대해 논의해 보자.

⇒㉠<토의>에서는 ㉡<연설>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방법 1~2)이 모색되고 있다.

4. <화법>

#이해 #3점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86%	2%	2%	2%	8%	86%

◆정답 ⑤

[A]

*학생2: 가해자는 별다른 죄의식 없이 사이버 언어폭력을 저지르지만 사이버 언어폭력은 처벌받게 되는 범죄 행위라는 점을 첫째 근거로 들어 1)경각심을 불러일으키자. 관련 법 조항을 자료로 제시하면 더 효과가 있을 거야.

학생3: 2)친구들에게 경각심을 준다는 점에서 좋은 근거라고 생각해.

⇒학생3은 청중의 경각심을 유발1)하는 측면에서 ⑤에 대한 학생2의 제안이 적절2)하다고 판단하였다.

◆오답 풀이

①

[A]

*학생3: 주제와 관련 있는 내용이면 좋겠어. 그래서 말인데, 1)연설을 시작할 때 연설 주제에 적합한 시를 낭송한 후 사이버 언어폭력의 개념과 사이버 언어폭력 근절의 시급성을 언급하자.

학생1: 응. 시 낭송은 참신한 방식이니 2)친구들의 주의를 끄는데 도움이 되겠네.

⇒학생1은 청중의 주의 집중 효과 측면에서 ①에 대한 학생3의 제안1)에 긍정적 반응2)을 보이며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②

[A]

*학생1: 연설 장소가 넓은 강당이고, 주제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제각각인 친구들이 대상이니 1)인기 가요를 틀어 친구들의 주의를 끄는 게 어떨까?

학생2: 글썸, 그 방법은 이미 다른 친구들이 여러 번 쓴 방법이라 더 2)이상 친구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어려워.

⇒학생2는 청중의 주의 집중 효과 측면에서 ②에 대한 학생1의 제안1)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2)하였다.

③

[A]

*학생2: 글썸, 그 방법은 이미 다른 친구들이 여러 번 쓴 방법이라 더 이상 친구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어려워. 1)가볍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시작하는 건 어때?

학생3: 연설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2)우리 연설 주제를 고려할 때 적합하지 않아.

⇒학생3은 연설 주제와의 부합 여부 측면에서 ③에 대한 학생2의 제안1)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④

[A]

*학생1: 1)사이버 언어폭력 문제의 핵심은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이므로 이 점을 첫째 근거로 제시하자. 순식간에 확산되는 사이버 언어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을 핵심 근거로 들어야 해.

학생2: 2)피해자가 겪는 고통을 핵심 근거로 보는 네 의견에는 동의해. 3)그런데 친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을 첫째 근거로 제시하면 어떨까?

⇒학생2는 핵심 근거로서의 적합성 측면에서 ④에 대한 학생1의 제안1)에 동의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판단2)한 것이다.

3)은 학생1의 제안에 동의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제안을 한 것이지, 학생1의 제안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5. <화법>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85%	6%	2%	4%	85%	4%

◆정답 ④

*학생2: 1)가해자는 별다른 죄의식 없이 사이버 언어폭력을 저지르지만 사이버 언어폭력은 처벌받게 되는 범죄 행위라는 점을 첫째 근거로 들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자.

학생3: 2)사이버 언어폭력으로 인한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통계 자료를 인용하면서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호소하는 거지.

⇒‘가해자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사이버 언어폭력을 저지른다는 것’1)과 ‘사이버 언어폭력으로 인한 피해자가 급증’2)에 관련된 것은 토의 내용에 있지만 <사이버 언어폭력 가해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없기에 <사이버 언어폭력 가해자가 늘어날수록 가해자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사이버 언어폭력을 저지른다는 것>을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다는 선지 ④는 ㉞<합의된 토의 내용>에 따른 연설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학생2: 가해자는 별다른 죄의식 없이 사이버 언어폭력을 저지르지만 1)사이버 언어폭력은 처벌받게 되는 범죄 행위라는 점을 첫째 근거로 들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자. 2)관련 범주항을 자료로 제시하면 더 효과가 있을 거야.

학생3: 친구들에게 경각심을 준다는 점에서 3)좋은 근거라고 생각해.

⇒사이버 언어폭력 행위는 처벌 대상임1)에 대해 관련 법 조항을 드는 것2)은 학생3도 합의한 것3)이므로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기에 적절하다.

②

*학생3: 그래서 말인데, 1)연설을 시작할 때 연설 주제에 적합한 시를 낭송한 후 사이버 언어폭력의 개념과 사이버 언어폭력 근절의 시급성을 언급하자.

학생1: 응. 2)시 낭송은 참신한 방식이니 친구들의 주의를 끄는데 도움이 되겠네.

⇒청중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 연설을 시작할 때 주제와 관련된 시 작품을 활용1)하는 것에 학생1도 합의2)했으므로 연설 계획으로 적절하다.

③

*학생1: 순식간에 확산되는 1)사이버 언어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을 핵심 근거로 들어야 해. 2)피해 사례를 다룬 언론 보도 자료를 보여 주면 친구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될 거야.

학생2: 피해자가 겪는 고통을 핵심 근거로 보는 3)내 의견에는 동의해.

⇒사이버 언어폭력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1)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한 언론 보도 사례를 활용2)하는 것에 대해 학생2가 합의3)하고 있기 때문에 주장의 근거로 적절하다.

⑤

*학생3: 1)누구나 사이버 언어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첫째 근거로 제시하면 친구들이 이 문제에 쉽게 공감할 수 있을 거야. 2)사이버 언어폭력으로 인한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통계 자료를 인용하면서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호소하는 거지.

학생1: 3)지금까지 제안된 근거와 자료는 다 적절하다고 생각되니 모두 채택하자.

⇒누구나 사이버 언어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1)에 대한 사이버 언어폭력의 피해자 관련 통계 자료를 인용2)한다는 것은 학생1이 합의3)했으므로 주장의 근거로 적절하다.

※6~8, <초고>

6. <작문>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86%	4%	6%	1%	86%	3%

◆정답 ④

*기상과 병충해 같은 1)농업 관련 정보를 수집, 처리, 활용하는 빅데이터 활용 기술이 농업에 도입되면 농산물의 생산량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가능해져 농가가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 [2문단]

*2)재배 환경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처리하여 최적화된 정보에 따라 재배 환경을 조절하고 자동 재배 시설을 제어하는 기술이 도입되면 실내에서의 대규모 농업도 가능해진다. [3문단]

⇒<농업 발전을 위한 정보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술1~2)은 반영되어 있어도 <농업 발전을 위한 정보 통신 기술>과 관련된 <정책의 변화>는 없다.

▶‘정책’은 ‘정부 기관’과 관련됨.

◆오답 풀이

①

*1)도심 곳곳의 고층 건물에서 층마다 농산물을 재배하는 모습을 영화가 아닌 현실에서 보게 될 것이다. [3문단]

⇒예상되는 미래 농업의 모습1)을 제시.

②

*신석기 시대 이래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온 1)농업은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가장 기본적인 산업이다. [1문단]

⇒농업의 중요성1)에 대해 언급하며 글을 시작.

③

*기상과 병충해 같은 1)농업 관련 정보를 수집, 처리, 활용하는 빅데이터 활용 기술이 농업에 도입되면 농산물의 생산량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가능해져 농가가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 [2문단]

*2)재배 환경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처리하여 최적화된 정보에 따라 재배 환경을 조절하고 자동 재배 시설을 제어하는 기술이 도입되면 실내에서의 대규모 농업도 가능해진다. [3문단]

⇒농업에 도입될 정보 통신 기술1~2)

⑤

1)지금까지는 농산물을 기를 때 기상 상태나 병충해와 같은 외부 환경으로 인한 피해가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이 컸기 때문에 생산량을 예측하고 조절하는 것이 어려웠다. 2)이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2문단]

*온도와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빛의 양 등 농작물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들을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 시설이 완비된 식물 공장이 확산되면 농업은 이전과 달리 3)장소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 [3문단]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해결할 수 있는 현재 농업의 문제 상황1~3)

7. <작문>

#자료 활용 #3점 #원인_이유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83%	2%	6%	83%	4%	4%

◆정답 ③

[B]

*또한 1)<식물 공장>을 고층 건물 형태로 지으면 공간이 한정된 도시에서도 좋은 품질의 농작물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

⇒<초고>에는 ㉠<미래 식량 위기>와 관련된 내용은 없다. 또한, [B]에서 고층 형태의 <식물 공장>으로 인한 대량 생산1)에 대한 내용은 있어도 <식물 공장>의 경제적 효과와 관련된 내용은 없다.

◆오답 풀이

①

[A]

*실제로 1)'농업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해 농사를 지은 농가의 생산성이 향상된 사례도 있다.

⇒㉠의 정보를 이용하여 [A]에서 정보 통신 기술(→농업 관련 빅데이터) 도입의 긍정적 사례1)로 제시하였다.

②

[A]

*지금까지는 농산물을 기를 때 1)<기상 상태>나 병충해와 같은 외부 환경으로 인한 피해가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이 컸기 때문에 생산량을 예측하고 조절하는 것이 어려웠다.

⇒㉠의 기상 현상을 포괄하여 [A]에서 생산량의 예측과 조절이 어려웠던 원인1)을 제시하는 데 활용하였다.

※<원인과 이유>를 구분해 보자.

ㄱ.원인: 어떤 사물이나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일으키게 하는 근본이 된 일이나 사건.

ㄴ.이유: 어떠한 결론이나 결과에 이르는 까닭이나 근거.

▶대개는 (원인=이유)인 경우가 많으나, 근본적인 원인이냐? 직접적인 이유냐?를 구별 판단하는 문제가 종종 출제된다.

④

[B]

*또한 1)식물 공장을 <고층 건물> 형태로 지으면 공간이 한정된 도시에서도 좋은 품질의 농작물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

⇒㉔의 실현 가능한 모습을 구체화1)하여 [B]에서 식물 공장의 형태(→고층 건물)에 대한 정보로 제시하였다.

⑤

[B]

*1)온도와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빛의 양 등 2)농작물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들을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 시설이 완비된 식물 공장이 확산되면 농업은 이전과 달리 장소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

⇒㉔의 요소들1)을 찾아 [B]에서 식물 공장의 시설에 대한 정보 2)를 제시하는 데 활용하였다.

8. <작문>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80%	①	②	③	④	⑤
	2%	11%	80%	6%	1%

◆정답 ③

<교지 편집부의 요청 내용>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1)'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른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에 대해 글을 써 주세요.

<초고>

2)<어업>과 같은 전통적인 산업에서도 농업과 유사한 발전 양상을 보일 것이다.→(통일성)이러한 상황 속에서 3)우리 농업은 계속 발전할 것이다.→(낙관적)

[고쳐 쓴 글]

*물론 이와 같은 기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높은 4)초기 투자 비용 등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때 우리 농업은 계속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초고>와 <고쳐 쓴 글>의 다른 점을 신속히 찾는 것이 관건.

⇒<초고>에서 '어업'을 말하고 있는 부분2)은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른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1)라는 글의 흐름에 어긋나는 문장이다. 그리고 <초고>에는 미래를 낙관적으로만 바라보고 있기3) 때문에 <고쳐 쓴 글>에서는 문제점과 해결의 당위성을 추가4)하고 있다.

◆오답 풀이 생략

※9~10, <작문 과제>

9. <작문>

#사례와 예시 #문제+해결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87%	①	②	③	④	⑤
	6%	1%	4%	2%	87%

◆정답 ⑤

[A]

*친동생을 대할 때 그의 말을 잘 들어 주고 스스로 마음을 드러내도록 도와주기보다는 1)동생의 생각을 지레짐작하고 내 잣대를 내세워 입바른 소리부터 한다. 그러다 보면 제대로 된 대화는 커녕 관계가 서먹해지고 심지어 다투게 될 때도 있다.

[B]

*2)친구 간에 말 몇 마디 주고받지도 않고 선불리 자신과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고 여기고 이내 마음을 닫아 버릴 때가 있다. 그것이 때로 오해나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나 역시 그런 경우가 있어 부끄럽다.

⇒[A]와 [B] 모두 의사소통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1~2)를 제시했지만 그것이 해결된 사례는 없다.

▶글에서 문제나 한계점이 나오면 이에 대한 대안 및 해결책도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문제나 한계점만 제시되고 대안 및 해결책이 없다면 부적절함을 의심해봐야 한다.

※<사례와 예시>에 대해 알아보자!

ㄱ. 사례: 어떤 일이 전에 실제로 일어난 예. (→과거의 일)

ㄴ. 예시: 예를 들어 보임.

◆오답 풀이

①

[A]

*소리꾼과 북재비의 판소리 공연 모습에서 내가 1)상담 선생님을 찾아뵈었을 때의 상황이 떠올랐다.

[B]

*소리꾼과 북재비가 완벽한 호흡을 통해 공연을 완성해 나간다고 하는 것을 보니, 2)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책에서 읽었던 내용이 떠올랐다.

⇒자료의 내용을 [A]에서는 상담 경험1)과, [B]에서는 독서 경험2)과 관련지었다.

②

[A]

1)친동생을 대할 때 그의 말을 잘 들어 주고 스스로 마음을 드러내도록 도와주기보다는 동생의 생각을 지레짐작하고 내 잣대를 내세워 입바른 소리부터 한다.

[B]

2)친구 간에 말 몇 마디 주고받지도 않고 선불리 자신과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고 여기고 이내 마음을 닫아 버릴 때가 있다.

⇒자료에서 이끌어 낸 의미를 [A]에서는 ‘가족’과의 의사소통 상황1)에, [B]에서는 ‘친구’와의 의사소통 상황2)에 적용하였다.

③

[A]

*선생님께서서는 마치 1)복재비의 역할을 하듯 나를 복돋워 주신다.

[B]

*이는 마치 2)소리꾼과 복재비가 완벽한 호흡을 이루기 위해 오랜 시간 함께하며 교감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다.

⇒[A]에서는 ‘복재비’의 역할1)에, [B]에서는 ‘소리꾼’과 ‘복재비’가 완벽한 호흡2)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과정에 주목하였다.

④

[A]

*그런데 나는 그런 태도가 부족해 부끄럽다.

[B]

*그것이 때로 오해나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나 역시 그런 경우가 있어 부끄럽다.

⇒[A]와 [B] 모두 자료에서 이끌어 낸 의미와 관련하여 자신을 반성(→부끄러움)하였다.

▶<부끄러움>은 ‘반성’, ‘성찰’에 100% 대응된다.

10. <작문>

#조건 제시 #비유법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93%	2%	2%	93%	1%	2%

◆정답 ③

♣정답은 다음 3가지를 만족해야 한다.

- 비유적 표현
- ‘원활한 의사소통 태도’ 실천
- ‘원활한 의사소통 태도’ 효과

*대화는 서로의 마음을 열어 주는 열쇠1)→(은유법)이다. 대화를 지속적으로 나누며 교감해 나간다면2) 데면데면하던 사이도 언젠가는 마음이 통하는 사이가 될 것이다.3)

◆오답 풀이

①

⇒ 2)~실천, 3)~효과가 없음

*좋은 친구는 어둠을 밝혀 주는 등불과 같다.1)→(직유법) 내가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용기를 잃지 않고 내 앞에 놓인 길을 찾아 나서는 데 빛이 되기 때문이다.

②

⇒ 1)비유적 표현이 없음

*상대방과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면2)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할 것이다.3)

④

⇒ 1)비유적 표현이 없음

(나)

친구 간에 말 몇 마디 주고받지도 않고 선불리 자신과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고 여기고 이내 마음을 닫아 버릴 때가 있다. 그것이 때로 2)<오해>나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나 역시 그런 경우가 있어 부끄럽다.

*서로 잘 이해하는 사이라고 해서 오해가 전혀 없을 수는 없다.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기더라도 그것을 해결하려 노력한다면2) →글 (나)의 ‘오해’와 관련됨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3)

⑤

⇒ 2)~실천, 3)~효과가 없음

*좋은 친구 사이가 되는 데에 지름길은 없다.1)→(은유법) 선불리 내가 먼저 다가서려 하기보다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기다린다면 친구가 먼저 마음을 열고 내게 다가올 것이다.→(좋은 친구가 되기 위한 태도○ ‘원활한 의사 소통’의 태도×)

※<비유법>에 대해 알아보자.

- 직유법: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표현하는 것. ‘마치’, ‘흡사’, ‘같이’, ‘처럼’, ‘듯’ 등의 연결어를 사용함.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 은유법: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표현하는 것. ‘A는 B다’라는 형태로 표현됨. (내 마음은 호수요)
- 의인법: 사람이 아닌 동식물이나 무생물, 개념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 (별이 내게 속삭였다.)
- 활유법: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 (냉장고가 숨을 쉬고 있다)
- 풍유법: 원관념을 드러내지 않고 보조관념으로 뜻을 암시하는 것. (등잔 밑이 어둡다)
- 대유법: 대상의 부분, 특징, 모양 등을 들어, 대상 전체를 나타내는 방법.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빵: 음식, 먹거리)

- 7)의성법: 사물의 소리를 본 딴 말을 사용하여 실제와 비슷하게 나타내는 방법. (멍멍, 졸졸졸)
 8)의태법: 사물의 모양을 본 딴 말을 사용하여 실제와 비슷하게 나타내는 방법. (영금영금, 슬금슬금)

※11~12, <직접 구성 요소 분석>

11. <문법> [오답률: 평가원 4개년 중 17위]

#학습 활동 #이해 #단어의 형성 #어간_어근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47%	①	②	③	④	⑤
	22%	47%	9%	14%	8%

◆정답 ②

*<직접 구성 요소>란 어떤 말을 직접 이루고 있는 두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나오는 두 요소이다. 위의 '민물고기'에서는 '민물'과 '고기'가 직접 구성 요소가 된다. 이 분석은 '민물'에 대해서도 더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직접 구성 요소를 분석해 보면 한 단어에 합성과 파생 과정이 모두 있는 '민물고기'는 파생어가 아닌 합성어임을 알 수 있다. [2문단]

- ㉞ <눈웃음>: 눈+ [웃음] → 눈+ [웃+ 음]
 1)[웃(어근)+ 음(접사)] ☞ 파생어
 2)눈(어근)+ [웃(어근)+ 음(접사)] ☞ 합성어

⇒㉞<눈웃음>은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파생어1)인 합성어2)이다.

◆오답 풀이

①

- ㉠ <나들이웃>: [나들이]+ 웃 → [나들+ 이]+ 웃
 1)[나들(어근)+ 이(접사)] ☞ 파생어
 2)[나들(어근)+ 이(접사)]+ 웃(어근) ☞ 합성어

⇒㉠<나들이웃>은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파생어1)인 합성어2)이다.

③

- ㉡ <드높이다>: [드높]+ [이다] → [드+ 높]+ [이+ 다]
 1) 드(접사)+ 높(어근) ☞ 파생어
 2)[드(접사)+ 높(어근)]+ [이(접사)+ 다(어미)] ☞ 파생어

*이(접사)+ 다(어미) ☞ 파생어도 합성어도 아님
 *드높이(어간)+ 다(어미)

⇒㉡<드높이다>는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파생어1)인 파생어2)이다.

④

- ㉢ <집집이>: [집집]+ 이 → [집+ 집]+ 이
 1)[집(어근)+ 집(어근)] ☞ 합성어
 2)[집(어근)+ 집(어근)]+ 이(접사) ☞ 파생어

⇒㉢<집집이>는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합성어1)인 파생어2)이다.

⑤

- ㉣ <높이터>: [높이]+ 터 → [높+ 이]+ 터
 1)[높(어근)+ 이(접사)] ☞ 파생어
 2)[높(어근)+ 이(접사)]+ 터(어근) ☞ 합성어

⇒㉣<높이터>는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파생어1)인 합성어2)이다.

※ 단어의 형성에 대해 알아보자!

- ㄱ. 단일어 (1어근)
- ㄴ. 복합어 (합성어: 2어근 이상, 파생어: 어근+접사)
- ㄷ. 어근: 단어의 중심 의미
- ㄹ. 접사: 중심 의미에 더해지는 의미

※ 어간과 어근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 ㄱ. 어간: 용언의 활용형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
→(변하는 부분인 '어미'와 결합됨)
- ㄴ. 어근: 단어를 분석할 때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이 되는 부분을 가리킴.

☞ 모든 어간은 어근으로 볼 수 있으나 모든 어근이 어간에 해당하지는 않다.

- *먹+다, 먹+고, 먹+으니...
→('먹-'은 어간, '-다, '-고, '-으니'는 어미)
☞('먹-'은 어근으로도 볼 수 있음)
- *뉘+개, 어른+스럽다...→('뉘, '어른'은 어근)

12. <문법> **오답률: 평가원 4개년 중 58위**

#관점 #분석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58%	7%	58%	8%	24%	3%

◆정답 ②

*긴 문장도 직접 구성 요소 분석을 통해 그 구조를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문장에는 주어와 서술어가 나타나므로, **문장의 직접 구성 요소는 <주어>와 <서술어>**가 된다. 그런데 서술어는 홀로 나오기도 하지만 주어 이외의 **필수 성분과 결합**하여 나오는 경우도 있다. [끝문단]

㉠ 소포가 도착했다고 들었다.

→[소포가 / 도착했다고]+ 들었다.

⇒㉠에서 ‘들었다’의 주어는 생략되어 있는 것이지 <소포>가 아니다. 왜냐하면, 소포는 무생물이어서 ‘듣는’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포가 도착했다고’와 ‘들었다’로 분석된다. (*하위 층위에서, ‘소포가+도착했다고’로 한 번 더 분석됨)

◆오답 풀이

①

*㉡ 지회는 목소리가 곱다.

→지회는+ [목소리가 / 곱다.]

⇒㉡은 주어 부분인 ‘지회는’과 서술어 부분인 ‘목소리가 곱다’로 분석된다. (*하위 층위에서, ‘목소리가+곱다’로 한 번 더 분석됨)

③

*㉢ 동수가 미애에게 선물을 주었다.

→동수가+ [미애에게 선물을 / 주었다.]

→동수가+ [미애에게+ 선물을 / 주었다.]

⇒㉢은 주어 부분인 ‘동수가’와 서술어 부분인 ‘미애에게 선물을 주었다’로 분석된다. (*하위 층위에서, ‘미애에게 선물을+주었다’로 분석되고 더 하위의 층위에서 ‘미애에게+선물을’로 또 분석됨)

④

*㉣ 그가 익명의 기부자임이 밝혀졌다.

→[그가 / 익명의 기부자임이]+ 밝혀졌다.

→그가+ [익명의+기부자임이 / 밝혀졌다.]

⇒㉣은 주어 부분인 ‘그가 익명의 기부자임이’와 서술어 부분인 ‘밝혀졌다’로 분석된다. (*하위 층위에서, ‘그가+익명의 기부자이다.’로 분석되고 더 하위의 층위에서 ‘익명의’+‘기부자임이’로 또 분석됨)

⑤

*㉤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말은 명언이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 말은]+ 명언이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 말은]+ 명언이다.

→인생은+ 짧고 / 예술은+ 길다는~

⇒㉤은 주어 부분인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말은’과 서술어 부분인 ‘명언이다’로 분석된다. (*하위 층위에서,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말은’으로 분석되며 더 하위의 층위에서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으로 분석되며 더 하위의 층위에서 ‘인생은’+ ‘짧고’ / ‘예술’은+ ‘길다는’으로 분석된다)

13. <문법> **오답률: 평가원 4개년 중 21위**

#의지_추측 #어미의 종류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53%	4%	9%	53%	10%	24%

◆정답 ③

㉠ 그 친구가 설마 그 음식을 다 먹었겠니?

*먹었겠니: 먹(어간)+ 었(과거)+ 겠(추측)+ 니(종결 어미)

→(설의적 표현: 먹지 않음을 추측)

⇒‘-겠-’은 주체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일에 대해 ‘추측’을 나타낸다.

*의지: 어떠한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미래와 관련)

*내가 그 음식을 다 먹겠다. →(‘겠’: 의지)

◆오답 풀이

①

㉡ 민수가 그 나무를 심었구나!

*심었구나: 심(어간)+ 었(과거)+ 구나(종결 어미)

⇒㉡에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었-’이 ㉠로 쓰였고, 감탄형 종결 어미 ‘-구나’가 ㉡로 쓰였다.

▶감탄형 종결어미: ‘-(는)구나, ‘(로)구나, (는)도다’, -로다’

※‘-아라 / -어라’의 쓰임.

ㄱ.명령형: 동사와 결합.

ㄴ.감탄형: 형용사와 결합.

*과자를 먹어라. →(동사: 명령형)

(참으로 멋져라. →(멋지+어라 / 형용사: 감탄형)

②

㉠ 저기서 **청소하는** 아이가 내 동생이야.

***청소하는**: 청소하(어간)+는(관형사형 어미)

⇒㉠에는 ㉡는 없고 동사의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전성 어미 '-는'이 ㉢로 쓰였다.

④

㉡ 그가 나에게 권한 책은 이미 **읽은** 책이다.

***읽은**: 읽(어간)+은(관형사형 어미)

⇒㉡에는 ㉢는 없고 동사의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전성 어미 '-은'이 ㉣로 쓰였다. <과거 부사인 <이미>를 통해 ㉡의 시제가 뚜렷하게 과거임을 알 수 있고 <은>이 현재 관형사형 어미가 아닌, 과거 관형사형 어미임을 알 수 있다.

※**관형사형 어미 <은/는>**

- ㄱ. 과거형- 어제 **먹은** 음식들
- ㄴ. 현재형- 밥을 **먹는** 중이다

⑤

㉢ 주말에 바람은 **불겠지만** 비는 오지 않을 것이다.

***불겠지만**: 불(어간)+겠(추측)+지만(연결 어미)

⇒㉢에는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겠-'이 ㉣로 쓰였고, 대등적 연결 어미 '-지만'이 ㉤로 쓰였다.

☞<바람>은 무생물이기 때문에 '겠'이 의지를 나타낼 여지는 없다.

▶<대등적 연결 어미>는 앞 뒤 문장을 '나열', '대조', '선택' 등으로 연결하며 앞 뒤 문장을 반대의 맥락으로 연결하는 '-지만'도 이에 해당한다.

※**어미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 ㄱ. **선어말 어미**: 시제, 높임 (선생님께서 가+**시**+**었**+다)
- ㄴ. **어말 어미**: 전성, 연결, 종결 (밥 **먹**기가 힘들**면** 말**해**라)

※**시제 선어말 어미에 대해 알아보자!**

- ㄱ.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ㄴ- / -는- ☞(철수가 밥을 **먹**는다.)
- ㄴ.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 / -았- ☞(철수가 밥을 **먹**었다.)
- ㄷ.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 -겠- ☞(밥을 다 먹고 숙제를 **하**겠다.)
- ㄹ. **회상** 시제 선어말 어미: -더- ☞(철수가 밥을 먹고 **있**더라.)

※**종결 어미에 대해 알아보자!**

- ㄱ. **평서형** 종결 어미: -다, -네, -오, -ㅂ니다. -느니라, -렀다, -마... ☞(꽃이 예**쁘**다.)
- ㄴ. **의문형** 종결 어미: -느냐, -니, -나, -ㅂ니까, -까... ☞(꽃이 예**쁘**니?)
- ㄷ. **감탄형** 종결 어미: -구나, -군, -로구나, -어라/-아라(형용사에서)... ☞(꽃이 예**쁘**구나!)
- ㄹ. **명령형** 종결 어미: -어라/-아라, -려무나, -어/-아... ☞(철수야, 밥 **먹**어라.)
- ㅁ. **청유형** 종결 어미: -자, -세 ☞(철수야, 밥 **먹**자.)

※**연결 어미에 대해 알아보자!**

- ㄱ. **대등적** 연결 어미: -고, -며, -면서, -거나 -거나, -든지... ☞(꽃이 **피**고, 새가 **운**다.)
- ㄴ. **종속적** 연결 어미: -면, -니, -려고, -러... ☞(봄이 오**면**, 꽃이 **핀**다)
- ㄷ. **보조적** 연결 어미: 본용언과 보조 용언 사이에 오는 '-아/-어, -게, -지,-고' ☞(손을 **잡**아 버렸다.)

※**전성 어미에 대해 알아보자!**

- ㄱ. **관형사형** 전성 어미: -는, -(으)ㄴ, -(으)ㄹ ☞(지금 밥을 **먹**는 사람이 누구냐?)
- ㄴ. **명사형** 전성 어미: -(으)ㅁ, -기 ☞(역지로 **울**기는 쉽지 않다.)

14. <문법>

#3점 #인용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93%	93%	1%	2%	3%	1%

◆**정답 ①**

***직접 인용**: 아들이 어제 저(아버지)에게 1)“**내일 사무실에 계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간접 인용**: 아들이 어제 저(아버지)에게 (㉠) 사무실에 (㉡) 말했습니다.

⇒**아들의 발화1)** 시점은 어제이며, 어제에서의 내일은 <오늘>에 해당한다. ☞(㉠: **오늘**)

⇒**아들의 발화1)**에서 아버지(혹은 어머니)는 높임의 대상이기에 '계십시오'를 썼지만, 간접 인용에서는 화자가 자신을 높일 수 없으므로 <있으라고>를 써야한다. ☞(㉡: **있으라고**)

▶**화자가 직접 자기 자신을 높이면 비문법적인 표현이 된다.**

- *나는 똑똑하다 (○) *나는 똑똑하시다 (×)
- *아들이 저에게 사무실에 계시라고 말했습니다. (×)
→(화자=계시는 주체=아버지)
☞(화자가 직접 자신을 '계시다'로 높이는 것은 안 됨)

*아들이 저에게 “사무실에 계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
 →(직접 인용의 화자=아들, 계시는 주체=아버지)
 ☞(전체 문장의 화자는 ‘아버지’고 계시는 주체를 높이는 이는 ‘아들’임)

*직접 인용: 언니는 어제 1)“나의 휴대 전화에 메시지를 꼭 남
 겨라.”라고 나에게 말했다.

*간접 인용: 언니는 어제 (㉠) 휴대 전화에 메시지를 꼭 (㉡)
 나에게 말했다.

⇒언니의 발화1)에서 ‘나’는 동생의 입장에서 ‘언니’에 해당한다.
 그런데 ‘언니’는 문장의 주어로 이미 나왔으므로 이를 대신할 3
 인칭 재귀대명사(→자기)를 사용해야 한다. ☞(㉠: 자기)

⇒언니의 발화1)에서 언니의 명령(→남겨라)을 화자가 직접 자신
 에게 명령하는 표현 그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남기다’의 형태
 를 유지해야 한다. ☞(㉡: 남기라고)

- ▶ 화자가 직접 자기 자신을 명령하면 비문법적인 표현이 된다.
- *나는 학교에 가다. (○) *나는 학교에 가라. (×)
- *나는 메시지를 남겨라.(×)

◆오답 풀이 생략

15. <문법> ☆오답률 5위☆ (평가원 4개년 중 7위)

#중세 국어 #명사 #높임법 #의문문 #조사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41%	4%	14%	12%	29%	41%

◆정답 ⑤

(마) 그 물 미퓌 金물에 잇느니
 (현대어 풀이: 그 물 밑에 금모래가 있는데)

*미퓌: 밑(무정 명사)+ 의(부사격 조사) →‘잇느니’를 수식
 =밑에: 밑(무정 명사)+ 예(부사격 조사) →‘있는데’를 수식

⇒높이지 않는 무정 명사(→밑)에 결합되는 <부사격 조사> ‘의’
 가 쓰였다. ☞부사격 조사가 붙은 말은 서술어를 수식한다. (*‘밑
 에’가 ‘있는데’를 수식)

※<명사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 ㄱ. 보통명사: 여러 사물에 보편적으로 적용.
- ㄴ. 고유명사: 단일한 사물에 대하여 적용.
- ㄷ. 무정명사: 감정을 나타내지 못하는, 식물이나 무생물을 가리
 킴. →(높임의 대상이 아님)
- ㄹ. 유정명사: 감정을 나타내는, 사람이나 동물을 가리킴.

◆오답 풀이

①

(가) 하늘 버리 눈 곧 디니이다
 (현대어 풀이: 하늘의 별이 눈과 같이 떨어집니다.)

*하늬: 하늘(무정 명사)+ ‘스’(관형격 조사) →‘버리’를 수식
 =하늘의: 하늘(무정 명사)+ ‘의’(관형격 조사) →‘별’을 수식

⇒무정 명사(→하늘)에 결합되는 관형격 조사 ‘스’이 쓰였다.
 ☞관형격 조사가 붙은 말은 바로 뒤의 체언(→별)을 수식한다.

②

(나) 王이 부터를 請흐스뵝쇼셔
 (현대어 풀이: 왕이 부처를 청하십시오.)

*請흐스뵝쇼셔:
 請흐(어간)+ 스뵝(객체높임 선어말어미)+ 쇼셔(종결어미)
 =청하십시오: 청하(어간)+ 십시오(종결어미)

⇒객체(→부터)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 ‘-슬-’(스뵝)이 쓰였다. ☞
 현대에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사용하지 않는다.

※<높임법의 종류>를 알아보자.

- 1)주체 높임법: 서술어에 호응하는 주어 높임.
 -(선생님께서서 가시다)
- 2)상대 높임법: 청자를 높임.
 -(학생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책을 읽어요)
- 3)객체 높임법: 부사어 혹은 목적어를 높임.
 -(내가 할머니께 돈을 드렸다)

◆한 문장 안에서 2개 이상의 높임법이 사용될 수 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어제 만나신 할머니께 제가 돈을 드렸어요.
 (화자: 나, 주체: 아버지, 청자: 어머니, 객체: 할머니)
 →(주체 높임: 만나신, 청자 높임: ~요, 객체 높임: 드렸~)

③

(다) 어마니물 아라보리로소니잇가
 (현대어 풀이: 어머니를 알아보겠습니까?)

⇒관정 의문문의 ‘-아’ 계열의 의문형 어미(→‘가’)가 쓰였다.

※<의문문>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 ㄱ. 판정 의문문: 예 혹은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물음.
 →(어제 집에 들어갔었니?)
- ㄴ. 설명 의문문: 구체적 설명을 필요로 하는 물음.
 →(저녁은 무엇을 먹었니?)

④

(라) 내 이를 위하야
(현대어 풀이: 내가 이를 위해서)

*내: 나(대명사)+‘ㅣ’(주격 조사)
=내가: 내(대명사)+‘가’(주격 조사)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나) 뒤에 주격 조사 ‘ㅣ’가 쓰였다.

☞<내>가 중세에는 분석이 되었지만 현대에는 굳어진 형태로 사용된다.

♣우리 국어는 붙였다 떼는 첨가어적 성격이 매우 발달해 있어 품사 중 <조사>는 시험에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1순위임을 알고 철저히 공부해 두어야 한다.

※**조사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 ㄱ.격조사: 다양한 격을 형성. (이/가, 을/를, 예/에서, 이다~)
- ㄴ.접속조사: 낱말을 이어줌. (와/과, 이랑, 하고~)
- ㄷ.보조사: 낱말의 뜻을 더해 줌. (도, 만, 조차~)

※16~18, 신희의 <방옹시여>

*갈래: 평시조
*성격: 자연 친화적
*주제: 산 속에서 자연과 벗하며 시름을 잊고 지내고자 하는 마음.

*구성
제1수: 시비를 달고 달을 벗하며 지내는 삶
제2수: 공명을 잊고 지내는 마음과 임금 은혜에 대한 감사
제3수: 송죽의 푸르름에 대한 예찬
제4수: 네 노인의 고사와 달리 굳히는 은둔에 대한 생각
제5수: 진정한 은일 지사인 ‘양생’의 고사 회상
제6수: 하늘에 뜬 구름과 대비되는 달빛의 맑음에 대한 감탄

*감상의 길잡이
☞이 작품은 상춘 신희가 계축옥사(광해군)를 경험한 정신적 혼란과 충격을 벗어나기 위해 산골에 묻혀 생활하는 마음을 노래한 30수의 시조이다. 제목 방옹시여의 뜻은 방옹은 밀려난(방출) 늙은이란 의미로 화자를 가리키며, 시여는 시조를 의미한다. 특히 제 1수는 눈이 내려서 오고 갈 사람도 없는데 문을 달아걸고 밤중에 명월이나 벗하며 살겠다는 생각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제 1수는 뒤에 이어지는 시조들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볼 수 있다.

※현대어 풀이

(가)
산골 마을에 눈이 오니 돌길이 모두 눈에 덮이고 말았구나
사립문을 열려 하지 말거라 날 찾을 이가 누가 있겠느냐
밤 하늘에 떠 있는 한 조각 저 밝은 달만이나 벗인가 하노라

(나)
서까래가 길든 째든 기둥이 기울었든 틀어졌든
작은 초가집을 비웃지들 말거라
아! 산에 가득 자란 덩굴 풀에 비친 달이 다 내 것이로다

(다)
한식날에 비가 온 이 밤에 봄빛이 퍼졌구나
마음과 정을 알 리 없는 꽃과 나무들도 때를 알아 이렇게 피었거늘
어찌하여 우리의 임은 간 후 오지 않는 것인가

(라)
어젯밤 비 온 후에 석류꽃이 다 피었구나
연꽃이 피어 있는 저 연못가를 향해 수정으로 만든 발을 걸어 두고
누구를 향한 이 깊은 걱정 마음을 풀어 보고자 하노라

(마)
창 밖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임이 온 줄 알고 일어나 보니
난초가 자라난 저 지름길에 낙엽이 떨어진 것이었구나
아! 길이가 정해져 있는 나의 내장들이 다 끊어질 것만 같도다

16. <고전시가>

#공통 선지의 법칙 #시의 전개 방식 #의인법_활유법
#정층법_점강법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84%	①	②	③	④	⑤
	4%	2%	84%	8%	2%

◆정답 ③

- (다)
1)한식(寒食) 비 온 밤에 봄빛이 다 퍼졌다
무정(無情)한 화류(花柳)도 재를 아라 띄웠거든 →(경치)
2)엇더타 우리의 님은 가고 아니 오노고 →(정서)

⇒(다)에서는 선정1)+후정2)의 전개 방식을 통해 화자의 내면(→님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시의 전개 방식에 대해 알아보자!

- ㄱ. 시간적 전개: 순행적, 역순행적
- ㄴ. 공간의 이동에 따른 전개: 근경→원경, 원경→근경
- ㄷ. 시선의 이동에 따른 전개
- ㄹ. 대립적 전개
- ㅁ. 수미상관식 전개: 처음과 끝이 동일 혹은 비슷
- ㅂ. 선경후정: 경치+정서
- ㅅ. 기승전결: 시상을 일으키고 발전과 전환 후 마무리

▶수능에서 시의 전개 방식에 관한 문제는 2년에 한 번 꼴로 출제되는 편이다.

◆오답 풀이

①

(가)

*시비(柴扉)를 여지 마라 날 츠즈리 님 이스리
→(물음x, 설의법O)
→(날 찾는 이가 없다!)

⇒(가)는 상대를 의식하지 않는 <독백조>인 것이지 대상과의 <문답>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당연히 시상의 심화도 없다.

▶시의 중반 혹은 후반도 아니고 첫 부분인 1수부터 시상의 심화??? ☞(시상을, 불러일으키고→전개하고→심화하여→마무리)한 다는 시의 일반적인 전개 양상을 벗어났기에 쉽게 선지 ①의 부적절성을 의심해 볼 수 있다.

②

⇒(나)에서는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 없어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는 것도 아니고 화자의 삶의 태도를 암시하는 것도 없다.

▶시에서 보통 과거와 현재의 대비가 나타나면 화려하고 행복한 과거와 초라하고 불행한 현재의 모습으로 대비되는 경우가 많다.

④

(라)

어저밤 비 온 후(後)에 1)석류(石榴)꽃지 다 피었다
2)부용 당반(芙蓉塘畔)*에 수정림(水晶簾)을 거더 두고
늘 향한 김흔 시름→(감정)을 못내 푸러 흐노라 <18수>

⇒(라)에서는 화자의 감정(→시름)이 나타나 있지만 대상에 이입된 것도 아니고 심리적 변화가 나타난 것도 아니다.

☞대상물이 있지만 꽃이 핀 객관적 사실1)을 나타내거나 연못에 발을 걸어 두는 행위2)를 나타낼 뿐이지 감정이 이입된 것은 아니다.

▶대상에 대한 감정 이입은 화자의 심리를 우회적(→돌려서,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효과가 있다.

(*‘외로운 새가 나무 위에서 울고 있다.’
→외로운 화자의 감정이 새에게 이입됨)

*수정림: 수정 구슬을 깨어서 만든 아름다운 발.

⑤

⇒(마)에서는 대상의 의인화도 없고 대상이 지닌 속성들을 점층적으로 나열하는 것도 없다.

※의인법 vs 활유법에 대해 알아보자!

- ㄱ. 활유법: 무생물을 생물인 것처럼, 감정이 없는 것을 감정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수사법.
- ㄴ. 의인법: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비겨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수사법.

☞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이면 의인법, 인간을 포함하여 다른 생물체까지 나타나는 특성이면 활유법이다.

※점층법과 점강법에 대해 알아보자!

- ㄱ. 점층법: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비중이나 강도를 점차 높이거나 넓혀 그 뜻을 강조.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 ㄴ. 점강법: 내용이 작아지고 좁아지고 약해져서 고조된 감정으로부터 점점 가라앉게 하는 표현.
(우주에서 지구라는 별에 있는 대한민국)

★문제 풀이 TIP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의 선지에서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발견하면 바로 다음 선지의 검토로 넘어가자.

* (x) 이후의 부분을 굳이 볼 필요가 없음

- ①(가)에서는 대상과의 문답(x)을 통해 시상을 심화하고 있다.
- ②(나)에서는 과거와 현재를 대비(x)하여 화자의 삶의 태도를 암시하고 있다.
- ③(다)에서는 선경후정의 전개 방식을 통해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 ④(라)에서는 대상에 감정을 이입(x)하여 심리적 변화를 우회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 ⑤(마)에서는 대상을 의인화(x)하여 대상이 지닌 속성들을 점층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대단히 유용한 팁★

♣공통 선지의 법칙!

☞ 5개의 선지중 하나의 선지가 산술적인 정답의 확률은 20%이지만 가장 적절한 것을 묻는 최선 긍정 발문형 문제에서 선지의 내용 중 최대 공통점(닮은 꼴)의 한 쌍이 존재하는 경우 그 둘 중 하나의 선지가 정답이 될 가능성은 약 70%이다.

위 문제의 선지 ③, ④는 내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 공통된다.

③~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④~심리적 변화를 우회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정답☆)

그래서 지문과 문제에 상관없이 ③, ④중에서 답이 있을 가능성은 약 70%이다.

▶ 출제자는 정답을 먼저 만들고 이와 유사한 매력 오답을 만든다. 이 과정에서 정답을 닮은 매력 오답이 나올 때가 있다. 수험생은 이를 역이용해 닮은 꼴 선지 쌍의 정답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알고 문제를 푸는 것과 모르고 문제를 푸는 것은 분명 다르다! 문제를 풀 다 자연스럽게 위와 같은 선지가 보인다면 다른 선지보다는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자. 사소한 팁 하나가 문제 풀이 시간을 절약해 1점 더 올릴 수 있는 중요한 보조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자!

17. <고전시가>

#공통 선지의 법칙 #보기 제시 #이해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83%	3%	4%	7%	83%	3%

◆정답 ④

(다)

한식(寒食) 비 온 밤에 <봄빛>치 다 퍼졌다
무정(無情)한 1)화류(花柳)도 새를 아라 띄웠거든
엇더타 우리의 님은 가고 아니 오느고

<보기>

⑥<님>으로 표상되는 선왕에 대한 그리움과 연모의 정

⇒<봄빛>은 '봄의 햇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다음 행에 있는<화류>를 비유한 것이다. (*밤에 햇볕이 나타날 수 없기 때문) 때가 되면 (꽃이 피는 것처럼) 순리대로 일어나는 자연 현상1)과 대비되어 님은 (때가 되어도) 오지 않는다.

☞그래서 화류를 비유한 <봄빛>은 임의 오지 않는 상황을 더욱 부각시켜 화자의 그리움(→보기의 ⑥와 연관)을 촉발시킨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

산촌(山村)에 <눈>이 오니 돌길이 못쳐세라
시비(柴扉)를 여지 마라 날 츠즈리→(속세 관련) 뉘 이스리
밤등만 일편명월(一片明月)이 귀 벗인가 흐노라→(자족감)

<보기>

「방옹시여」는 선조(宣祖) 사후에 1)정계에서 밀려난 신희이 은거 상황을 배경으로 창작한 시조 작품을 모아 놓은 것이다.~②은자로서의 자족감이나 자긍심을 표현한 작품군,

⇒(가)의 <눈>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돌길>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돌길>은 '산촌'과 '산촌 밖'의 연결 통로, 즉 '자연의 은거지'와 '속세'를 연결한다. 그런데 이 <돌길>이 <눈> 때문에 묻혔다는 것(→끊어짐)은 <눈>이 화자의 '은거지'와 속세의 통로를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눈>은 ②의 '자족감'이나 '자긍심'과는 상관이 없으며 화자의 은거는 정계에서 밀려나서 이루어진 것1)이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②

(나)

셋그래 기나 즈르나 기동이 기우나 트나
1)<수간모옥(數間茅屋)>을 죽은 줄 웃지 마라
→(소박한 것에 만족)
2)어즈버 만산 나월(滿山蘿月)이 다 너 거신가 흐노라
→(자연을 품은 만족)

<보기>

②은자로서의 자족감이나 자긍심

⇒(나)의 중장1)과 중장2)은 화자의 만족감을 나타내기 때문에 <수간모옥>은 ②와 연관된 시어로 볼 수 있지만 화자의 답답한 심정과 는 거리가 멀다.

☞②와 연관된(→자족감이나 자긍심 ☞긍정적) 시어인데 화자의 답답한 심정(☞부정적)이 투영되어 있다는 것은 '수간모옥'의 의미와는 상관없이 선지 ②는 자체적으로 오류가 있다.

③

(나)

셋그래 기나 즈르나 기동이 기우나 트나
1)수간모옥(數間茅屋)*을 죽은 줄 웃지 마라
→(소박한 것에 만족)
2)어즈버 <만산 나월(滿山蘿月)>이 다 너 거신가 흐노라
→(자연을 품은 만족)

<보기>

②은자로서의 자족감이나 자긍심

⇒(나)의 중장1)과 중장2)은 화자의 만족감을 나타내기 때문에 <만산 나월>은 ㉔와 연관된 시어로 볼 수 있지만 ‘님’이 부재한 상황을 절감하게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㉔와 연관된(→자족감이나 자긍심 ☞긍정적) 시어인데 ‘님’이 부재한 상황(☞부정적)을 절감하게 하는 소재라는 것은 ‘만산 나월’의 의미와는 상관없이 선지 ③은 자체적으로 오류가 있다.

⑤

(라)

어저밤 비 온 후(後)에 석류(石榴)꽃지 다 피엿다
<부용 당반(芙蓉塘畔)>에 수정렴(水晶簾)을 거더 두고
1)늘 향한 집흔 시름을 못내 푸러 흐노라

→(임 때문에 시름이 맺어 있음)

<보기>

⑥님으로 표상되는 선왕에 대한 그리움과 연모의 정

⇒(라)의 <부용 당반>은 임의 부재로 인한 화자의 시름1)이 나타는 공간으로 ⑥와 연관될 수 있으나, 화자가 연모하는 대상과 함께 지내는 공간은 아니다.

☞⑥와 연관된(→그리움 ☞부정적) 시어인데 화자가 연모하는 대상과 함께 지내는 공간(☞긍정적)이라 것은 <부용 당반>의 의미와는 상관없이 선지 ⑤는 자체적으로 오류가 있다.

★알아두면 좋을 꿀 팁★

♣선지 오류의 법칙!

위 문제의 선지 ②, ③, ⑤는 자체적인 오류가 있다.

☆만약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부정형 발문에 선지 자체의 오류를 발견하면 주저 없이 그 선지를 정답으로 판단해야한다.

이런 허술한 문제가 수능에 자주 등장한다.

① 글쓰기 전부터 지니고 있었던 배경 지식은 배제한다. (2015 수능 정답)

→ (독서 할 때뿐만 아니라 작문을 할 때에도 배경 지식은 글을 효과적으로 쓰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배경 지식을 오히려 작문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보고 배제하는 경우를 거의 생각해 보기 힘들다. 그래서 지문과는 상관없이 선지 자체가 성립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기 매우 어려워 부정형 발문에서 거의 정답에 가깝다.)

③ (다)를 활용하여, UCC 제작 경험이 없는 학생들은 UCC 제작 경험이 있는 학생들과 달리 스트레스를 해소할 만한 수단이 없음을 셋째 단락에 추가한다. (2014 수능의 정답 선지)

→ UCC 제작 경험과 스트레스 해소 수단과는 상식적으로 서로 관련성이 없어 선지 오류임

③ (가)의‘소리’와 (나)의‘바람’은 자유의 의미와 대비되는 소재들로서, 화자는 이에 부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 (2013 수능 정답 선지)

→ ‘소리’와 ‘바람’의 속성은 장애물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영향력을 미치는 속성이 있다. 이를 자유의 의미와 대비된다고 표현한 선지 ③은 상식적으로 잘못된 표현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⑤ 마무리 부분에서 청중의 이해도를 점검하고 발표 내용을 요약해야겠어. (2015 6월 평가원 정답 선지)

→ 말하기의 종류인 발표하기, 마무리 부분에서 청중의 이해도를 점검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청중의 이해도를 점검하는 것은 대부분 말하기의 중간 중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다. 선지 ⑤는 지문 내용과 상관없이 잘못된 선지일 가능성이 크다.

★대단히 유용한 팁★

♣공통 선지의 법칙!

☞ 5개의 선지중 하나의 선지가 산술적인 정답의 확률은 20%이지만 가장 적절한 것을 묻는 최선 긍정 발문형 문제에서 선지의 내용 중 최대 공통점(닭은 꿀)의 한 쌍이 존재하는 경우 그 둘 중 하나의 선지가 정답이 될 가능성은 약 70%이다.

위 문제의 선지 ③, ④는 <부재의 상황으로 인한 그리움 촉발>이 공통된 맥락을 갖는다.

③~ ‘님’이 부재한 상황을 절감하게 하는 소재이다.

④~‘님’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촉발하는 계기이다.

그래서 지문과 문제에 상관없이 ③, ④중에서 답이 있을 가능성은 약 70%이다.

▶출제자는 정답을 먼저 만들고 이와 유사한 매력 오답을 만든다. 이 과정에서 정답을 닮은 매력 오답이 나올 때가 있다. 수험생은 이를 역이용해 닮은 꿀 선지 쌍의 정답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알고 문제를 푸는 것과 모르고 문제를 푸는 것은 분명 다르다! 문제를 풀 다 자연스럽게 위와 같은 선지가 보인다면 다른 선지보다는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자. 사소한 팁 하나가 문제 풀이 시간을 절약해 1점 더 올릴 수 있는 중요한 보조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자!

18. <고전시가>

#보기 제시 #감상 #3점 #과장 #비난_비판 #심상_감각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84%	3%	2%	3%	84%	8%

◆정답 ④

(마)

*혜란 혜경(蕙蘭溪徑)*에 <낙엽(落葉)>은 무스 일고

<보기>

넘은 아나오 명월(明月)이 만정(滿庭)흔디 벽오동(碧梧桐)
저즌 <넙>히 봉황(鳳凰)이 느려안자 긴 부리를 휘여다가 두
느래에 너허 두고 슬금슬적 깃 다듬는 그림자 | 로다

⇒(마)의 중장에서는 착각을 야기한 대상(→낙엽)이 단순하게 제시된 것이지 묘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보기>의 중장에서는 착각을 야기한 대상(→잎)을 과장해서 제시한 것이지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과장: 나뭇잎의 모습을 봉황의 모습으로 확대함)

*묘사: 어떤 대상이나 사물, 현상 따위를 언어로 서술하거나 그림을 그리듯 구체적으로 표현함.

▶흔히 과장법을 크게 부풀려서 한 표현만으로 알고 있는데, 이 뿐만 아니라 실제보다 많이 작게 표현하는 것도 과장법이다.

ㄱ. 확대 과장법- 태양 같은 내 마음

ㄴ. 축소 과장법- 내 심장이 쥐꼬리 만해졌다.

※비난 v s 비판에 대해 알아보자!

ㄱ. 비난: 남의 잘못을 말함. ☹(부정적)

ㄴ. 비판: 남의 잘못을 말함.+문제의 원인 및 대안을 제시함

☺(긍정적)

◆오답 풀이

①

(마)

*창(窓)맞기 1)위석버석 →(청각적) 2)넘이신가 이려 보니 →(착각)

<보기>

*벽사창(碧紗窓)이 3)어른어른커늘 →(시각적) 4)넙만 너겨 →(착각)
풀썩 니러나 썩썩 나서 보니

⇒(마)의 초장과 <보기>의 초장에서는 모두 감각적 자극1,3)이 착각2,4)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시의 심상과 감각에 대해 알아보자!

ㄱ. 시각-눈으로 보는 것 (푸른 산, 높은 하늘, 빨간 꽃)

ㄴ. 청각-귀로 듣는 소리 (은은한 종소리)

ㄷ. 미각-혀가 느끼는 맛 (쓰디쓴 약)

ㄹ. 후각-코로 맡는 냄새 (향기로운 꽃)

ㅁ. 촉각-피부의 느낌 (서늘한 옷자락)

☞<시각적 심상>은 눈으로 보이는 것 중 색깔, 모양, 크기, 움직임 등과 관련이 있으면 해당된다. 이러한 시각적 심상을 빼고 시를 창작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시는 일단 감각적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원인+결과 의 다양한 상상들

*<착각>이 <감각적 자극>에서 비롯되다.

=<감각적 자극>를 계기로 <착각>이 일어남

=<감각적 자극>가 <착각>을 불러일으킴.

→원인: <감각적 자극> + 결과: <착각>

②

(마)

*1)창(窓)맞기 위석버석 2)넘이신가 이려 보니

<보기>

*3)벽사창(碧紗窓)이 어른어른커늘 4)넙만 너겨 풀썩 니러나 썩썩 나서 보니

⇒(마)의 초장과 <보기>의 초장에서는 모두 창밖의 변화1,3)에 즉각적으로 반응2,4)하는 화자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③

(마)

*혜란 혜경(蕙蘭溪徑)*에 <낙엽(落葉)>은 무스 일고

<보기>

*저즌 <넙>히 봉황(鳳凰)이 느려안자 긴 부리를 휘여다가 두

⇒(마)의 중장과 <보기>의 중장에서는 모두 화자의 착각을 불러일으킨 대상(→넙, 넙)이 확인되고 있다.

⑤

(마)

*어즈버 유한훈 1)간장(肝腸)이 다 끈칠까 호노라

<보기>

*모쳐로 밤일식만정 행여 낮이런들 2)눔 우일 변호여라

⇒(마)의 중장에서는 화자의 내면적 고통1)을 토로하고 있고, <보기>의 중장에서는 타인의 평가와 조소2)를 의식하고 있다.

★고전 문학은 해석부터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호소한다. 평소에 고전 문학 작품을 공부할 때에는 원문-해석을 자주 번갈아 보면서 고전 어휘가 눈에 익도록 해야한다. 원문에 70%정도만 해석이 되어도 문제 푸는데 충분하다.

※19~20,

(가) 윤동주의 <병원>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서정적, 산문적
 *주제: 상황 극복의 기원

*구성
 1연: 일광욕을 하는 여자 환자의 소묘
 2연: 동일한 병을 앓고 있는 나
 3연: 자신과 여자의 건강 회복 기원

*감상의 길잡이
 이 시는 배경으로 설정한 '병원', 거기에 환자로 등장하는 '여자', 일광욕을 하는 정경, 꽃을 가슴에 꽂는 장면 등 모두가 상징적으로 제시되어 윤동주의 내면 세계를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특히, 병원으로 상징되는 밀폐된 공간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젊은 여자에게 자신을 투영시켜 동일시한 수법은 단조로움을 피하고 극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나) 박목월의 <나무>

*갈래: 자유시
 *성격: 관조적, 성찰적
 *주제: 나무의 모습을 통해 깨닫게 되는 삶의 본질적인 고독

*구성
 1연: 늙은 나무의 묵중함
 2연: 나무의 춤고 침울한 모습
 3연: 산마루의 외로운 나무들
 4연: 마음에 뿌리 내린 나무의 모습

*감상의 길잡이
 화자는 유성에서 서울까지의 여행길에서 화자가 본 나무들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내면에 자리한 근원적 고독을 발견하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나무들은 이미 화자 안에 뿌리를 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나무'의 본질과 자신의 내면이 닮아 있음을 깨닫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간의 고독은 벗어날 수 없는 삶의 본질임을 말하고 있다. '나무'를 통해 인간의 실존적 내면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 작품은 인간과 자연 사이의 연속성을 전제함으로써 감정이입과 주객일체의 서정적 문법을 잘 보여주고 있다.

19. <현대시>

#색채어 #역동적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81%	①	②	③	④	⑤
	2%	3%	6%	81%	8%

◆정답 ④

⇒(나)는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변주(→수도승 일까, 어설픈 과객일까, 하늘 문을 지키는 파수병일까)하여 사물(→나무)이 연상시키는 의미(→고독)를 심화하고 있다. (가)에는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이 없다.

◆오답 풀이

①
 (가)
 *병원 뒤뜰에 누워, 젊은 여자가 1)흰옷 아래로 2)하얀 다리를 드러내 놓고 일광욕을 한다. 한나절이 기울도록 3)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를 찾아오는 이, 나비 한 마리도 없다.

⇒(가)는 색채 이미지1)를 활용하지만 병을 앓고 있는 것3)으로 역동성(→힘차고 활발하게 움직이는)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나)에는 색채 이미지가 없다.

▶<색채어>는 빛깔을 직접 나타내야하며 색을 가지고 있더라도 색깔의 명칭이 직접 드러나지 않는 대상물은 색채어가 아니다.

*푸르다, 누렇다, 불그스레하다, 새빨갳다 →(색채어 ○)
 *물감, 무지개, 색연필, 포도, 도화지 →(색채어 ×)

▶(*역동적: 힘차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에서 대상의 움직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역동적 분위기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보통 역동적인 분위기의 시는 대상의 움직임과 더불어 시적 화자의 심리 상태도 그와 어울리게 밝고 활발한 느낌을 주는 것이 많다.

②
 ⇒(가)에는 '병원', (나)에는 '유성', '조치원', '공주', '온양'과 같이 반복되는 일상을 벗어난 공간이 드러나 있기는 하지만 이 공간들이 일상의 공간과 대비되고 있지 않으며, 두 작품 모두 일상의 공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도 않다.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병원을 일상적 공간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병원은 일상적 공간이 아니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간이다.

*일상적: 날마다 볼 수 있는, 또는 그런 것.

③
 (가)
 *나는 그 여자의 건강이-아니 1)내 건강도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 본다.

(나)
 *아아 2)고독한 모습. 그 후로 3)나는 뽑아낼 수 없는 몇 그루의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

⇒(가)는 사물의 속성을 분석한 것은 없으며 여자로 인해 미래의 전망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화자 자신의 바람1)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이 더 어울린다.

*전망: 앞날을 헤아려 내다봄. 또는 내다보이는 장래의 상황.
 →(자신이 아닌, 자신을 둘러싼 상황에 대한 것일 때 사용)

(나)는 나무의 속성을 분석한 것이 아니라 나무를 통해 고독2)을 느낀 것이고 미래를 생각해서 한 긍정적인 행위3)는 있어도 미래의 전망을 제시하는 것은 없다.

*속성: 사물의 특징이나 성질. →(객관적)

☞나무에게서 고독을 느끼는 것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나무의 속성≠고독)

♣(가), (나) 둘 다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제시하는 것> 같기도 한 애매함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사물의 속성을 분석하는 것>은 확실히 아니기에 선지 ④를 시간 낭비 없이 신속히 부적절 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⑤
⇒(가)는 현재형 시제(→한다, 없다, 모른다...)가 있지만 그것으로 계절의 상징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 (나)는 과거형 시제(→만났다, 있었다, 보였다...)가 있지만 그것으로 시간에 따른 사물(→나무)의 변화상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나)에는 과거형 시제(→찾아왔다)가 하나 있지만 전체적으로 현재형 시제로 진술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문제 풀이 TIP

☞실제 수능에서는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의 선지에서 한 부분이라도 잘못된 것을 발견하면 나머지는 보지 않고 넘어가야 문제 풀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 ①(가)와 (나)는 모두 색채 이미지(x)를 활용하여 사물의 역동성을 드러내고 있다.☞(보지 않고 넘어감)
- ②(가)와 (나)는 모두 일상을 벗어난 공간과 대비(x)하여 일상의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보지 않고 넘어감)
- ③(가)는 (나)와 달리, 사물의 속성을 분석(x)하여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보지 않고 넘어감)
- ④(나)는 (가)와 달리,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변주하여 사물이 연상시키는 의미를 심화하고 있다. →(정답)
- ⑤(가)는 현재형 시제로 계절의 상징성을(x), (나)는 과거형 시제로 시간에 따른 사물의 변화상을 보여 주고 있다.☞(보지 않고 넘어감)

20. <현대시>

#보기 제시 #관점 #3점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89%	2%	4%	89%	3%	2%

◆정답 ③

⇒(가)의 화자는 ‘젊은이의 병’을 모르는 ‘늙은 의사’에 대해 답답함을 느낄 수는 있어도 원망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여자’와 공유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여자의 아픔과 자신의 병을 통해 동질성을 확인한다.

그리고 (나)의 화자는 ‘멀리 서 있’는 ‘나무’들의 모습에 주목은 하지만 그 위치를 확인하려는 것은 아니고 그를 통해 나무와 자신의 거리를 좁히려 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나무를 통해 자신도 고독을 느끼는 동질성을 확인한다.

☞선지 ③은 하나도 적절한 항목이 없기에 신속하게 정답으로 판단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가)
*살구나무 그늘로 얼굴을 가리고, 1)병원 뒤뜰에 누워, 젊은 여자가 흰옷 아래로 하얀 다리를 드러내 놓고 일광욕을 한다.

(나)
*유성에서 조치원으로 가는 어느 들판에 2)우두커니 서 있는 한 그루 늙은 나무를 만났다.~

다음날은 조치원에서 공주로 가는 어느 가난한 마을 어귀에 3)그들(→나무)은 떼를 저 몰려 있었다.

공주에서 온양으로 우회하는 뒷길 어느 산마루에 4)그들(→나무)은 멀리 서 있었다.

⇒(가)의 화자는 ‘병원 뒤뜰’에 누워 있는 ‘여자’를 관찰1)함으로써, (나)의 화자는 여로에서 만난 ‘나무’를 반복적으로 제시2~4)함으로써 대상을 인식(→아픔/고독)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여로: 여행하는 길.

②

<보기>

(가)의 화자는 병원에서 본 ‘여자’의 모습에 주목하고 1)‘여자’의 아픔에 비추어 자신의 처지를 성찰하며 ‘여자’가 지닌 치유에 대한 소망에 공감한다. (나)의 화자는 여행 중에 만난 2)‘나무’들의 모습에 주목하고 ‘나무’들에 비추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며 ‘나무’들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정서에 공감한다.

⇒(가)의 화자는 찾는 이가 없는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의 처지1)에, (나)의 화자는 ‘나무’에게서 본 ‘수도승’, ‘과객’, ‘파수병’의 모습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있다.2)

④

<보기>

(가)의 화자는 병원에서 본 ‘여자’의 모습에 주목하고 ‘여자’의 아픔에 비추어 자신의 처지를 성찰하며 1)‘여자’가 지닌 치유(→회복)에 대한 소망에 공감한다. (나)의 화자는 여행 중에 만난 ‘나무’들의 모습에 주목하고 ‘나무’들에 비추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며 2)‘나무’들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정서(→외로움)에 공감한다.

⇒(가)의 화자는 ‘금잔화 한 포기’를 꺾고 병실로 들어가는 ‘여

자'에게서 '회복'에 대한 소망1)을 읽어 냄으로써, (나)의 화자는 '나무'들이 '외로워 보였다'고 표현함으로써 대상에 공감2)하고 있다.

⑤
⇒(가)의 화자는 '그가 누웠던' 곳에 '누워 본다'고 함으로써, (→ 대상과의 동일한 행위를 통해) (나)의 화자는 '뽑아낼 수 없'는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고 함으로써 (→나무가 내 안에 뿌리를 펴고 있는 것처럼) 대상과 자신의 동질성(→아픔/고독)을 드러내고 있다.

***21~24, 황순원의 <독 짓는 늙은이>**

(가)

*갈래: 시나라오

*전체 줄거리:

독을 구워 파는 송 영감(황해)은 눈발에 쓰러져 있던 옥수(윤정희)를 구해준다. 이후 그들은 부부가 되는데, 아들 당손(김정훈)이 일곱 살 되던 해 그동안 옥수를 찾아 헤매던 옛 애인 석현(남궁원)이 찾아온다. 석현은 다시는 옥수와 헤어지지 않기 위해 송 영감 밑에서 독짓는 일을 거둔다. 그러나 석현과 옥수는 끝내 야반도주를 하고 그때부터 송 영감의 삶은 걸잡을 수 없이 부서지기 시작한다. 독은 깨져버리고 어린 아들은 양자로 떠나간다. 옥수로 인해 송 영감은 불행의 늪에 빠지고 결국 비탄 속에 자살한다. 세월이 흐른 뒤 장성한 아들 당손(김희라)이 송 영감의 가마를 찾아오고, 참회하기 위해 그곳에 온 어머니와 극적으로 상봉한다.

*감상의 길잡이

☞ 황순원의 단편소설을 원작으로 하며, 일생을 독 굶는 일에 바쳐 온 한 노인이 젊은 아내의 배신과 독 굶는 일이 실패하자 자신의 전 생애를 바친 가마 속에서 비장한 최후를 마치는 내용.

(나)

*갈래: 단편 소설, 순수 소설

*주제: 본연적인 삶에 대한 인물의 집념과 좌절을 통해 현대 사회에서 파괴되어 가는 한국의 전통적 인간상 제시.

*전체 구성

발단: 조수와 달아난 아내

전개: 쇠약해진 송영감이 자꾸 쓰러짐. 앵두나뭇집 할머니가 당손이를 남의 집에 주자고 함.

위기: 송영감이 병석에 눕자, 당손이에 대한 할머니의 채근이 잦아짐.

절정: 독을 굶다가 쓰러지는 송영감

결말: 당손이를 남의 집에 주고, 가마 속에 무릎을 꿇고 앉은 송영감.

*감상의 길잡이

☞ 이 작품은 전통적인 가치가 붕괴되어 가는 세태의 변화 속에서 '독 짓기'에 대한 집념을 지닌 늙고 병든 한 노인이 현실적 빈민의 상황과 대결하다 패배하는 과정과 더불어 세계에 대한 패배감이 비장한 장인 정신에 의해 예술적인 승고함으로 승화되는 경지를 보여 주고 있다.

21. <시나라오>

#갈등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67%	3%	6%	17%	67%	7%

◆정답 ④

(가)

*1)자리에 누운 송 영감. 나직히 신음한다. 처가 와서 약그릇을 놓는다. [지문초반]

*송 영감:~2)(비통하게) 이진 흙덩이다! 가마 앞에 달려가 망치를 든다.~

송 영감: 닥쳐! 이진 부정을 탕어! 모두 쳐부셔야 했!

떨어붙이며 달려가 미친 사람처럼 ㉠독을 박살 내기 시작한다.~

송 영감 그만 숨이 턱에 닿는다. 풀썩 주저앉고 만다. 목구멍에서 차츰 오열이 새어 나온다.

(나)

오늘은 또 지어 올리는 독을 말리느라고 처음에는 독 밖에 피워 놓았다가 독이 한 반쯤 지어지면 독 안에 매달아 놓은 숯불의 숯내까지가 머리를 더 무겁게 했다. 사십 년래 없이 숯내를 다 먹는 듯했다.→(과장법: 숯을 많이 먹게 됨)

<보기>

오랜 시간의 숙련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을 극복하며 경지에 이른 장인은 자신이 제작하는 작품을 통해 3)예술가적 집념과 열의를 보여 준다.

⇒'풀썩 주저앉고 만다'는 몸 상태가 좋은 앓은 송영감1)이 비통한 마음으로 잘못된 ㉠<독을 박살 내다>가2) 지친 것이지 ㉠<독을 박살 내기>를 계기로 예술가의 집념이 좌절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사십 년래 없이 숯내를 다 먹는 듯했다'는 ㉠<독 짓기>의 과정에서 숯을 많이 먹게 되는 상황을 과장되게 표현한 것이지 ㉠<독 짓기>의 과정에서 부딪힌 장인으로서의 능력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 예술가의 집념이 좌절된다거나 장인으로서의 능력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은 예술가적 집념과 열의를 보여 준다는 <보기>의 관점3)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가)

*송 영감: 1)‘이건 흙덩이다!’→(미적 기준을 만족x) 가마 앞에 달려가 2)망치를 든다.→(독을 박살 내기 위함)~

송 영감: 닥쳤! 이건 부정을 탔어! 모두 쳐부셔야 했! 밀어붙이며 달려가 미친 사람처럼 ㉠독을 박살 내기 시작한 다.

(나)

3)송 영감은 어제보다 더 쓰러져 넘어지는 도수가 많았다. 흙 이 기던 똥손이가 이래서는 도무지 한 가마 채우지 못하리라고 송 영감에게 내년엔 마저 지어 첫 가마에 넣도록 하는 게 어떠냐고 몇 번이고 권해 보았으나 송 영감은 일어났다가는 쓰러지고, 일어났다가는 쓰러지고→(예술가적 집념과 열의) 하면서도 독 짓기를 그만두려고 하지는 않았다.

<보기>

‘장인(匠人)’을 소재로 한 문학 작품에서 ‘장인’은 실용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술자의 모습과 4)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예술가의 모습을 모두 지닌 존재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오랜 시간의 숙련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을 극복하며 경지에 이른 장인은 자신이 제작하는 작품을 통해 5)예술가적 집념과 열의를 보여 준다.

⇒흙덩이라고 여기며1) 망치를 드는 것2)으로 보아 ‘아냐! 이건 독이 아냐!’는 ㉠<독을 박살 내기>의 원인이 되는 장인의 엄격한 미적 기준4)을 드러낸다. 그리고 ‘일어났다가는 쓰러지고, 일어났다가는 쓰러지고’는 아픈 몸3)임에도 불구하고 ㉢<독 짓기>를 향한 장인의 예술가적 집념5)을 보여 준다.

*도수: 거듭하는 횟수.

②

(가)

*송 영감: 이건 ‘흙덩이다!’→(미적 기준을 만족x) 가마 앞에 달려가 1)망치를 든다.→(독을 박살 내기 위함)

송 영감: 닥쳤! 이건 부정을 탔어! 모두 쳐부셔야 했! 밀어붙이며 달려가 미친 사람처럼 ㉠독을 박살 내기 시작한 다.

(나)

*송 영감이 정신이 들었을 때는 저녁때가 기울어서였다. 똥손이도 ‘흙 몇 덩이’를 이겨 놓고 가고 없었다.~어머니를 기다리는 거리라. 언제나처럼 장 보러 간 어머니가 언제나처럼 저녁때면 조수(→똥손이)에게 장감을 지워 가지고 돌아올 줄로만 아직 아는가 보다.

⇒망치를 드는 것1)으로 보아 ‘흙덩이다!’는 장인의 가치 판단(→미적 기준을 만족x)으로 ㉠<독을 박살 내기>의 동기를 드러내고, 영감의 일을 도와주는 똥손이의 ‘흙 몇 덩이’는 ㉢<독 짓기>에서 장인이 자신의 작품을 제작할 때 사용하는 재료를 가리킨다.

*조수: 어떤 책임자 밑에서 지도를 받으면서 그 일을 도와주는 사람.

▶A(원인=이유=동기=계기)+B(결과)

③

(가)

송 영감: 닥쳤! 이건 부정을 탔어! 모두 쳐부셔야 했! 밀어붙이며 달려가 미친 사람처럼 ㉠독을 박살 내기 시작한 다.~

똥손이: (비통 혼잣말같이) 자네 1)환장했구먼! 석현이 ‘매섭게 보다가 똥하니 간다.’ 옥수 2)몹시 불안하게 그를 바라본다.

(나)

*차차 송 영감의 숨씨에는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 더구나 조마구와 부채마치로 두드려 울릴 때, 퍼뜩 눈앞에 아내와 ‘조수의 환영’이 떠오르면 3)짓던 독을 때리는지 아내와 조수를 때리는지 분간 못 하는 새, 독이 그만 얹게 못나게 지어지곤 했다.

⇒‘매섭게 보다가 똥하니 간다’는 ㉠<독을 박살 내기>로 인해 벌어지는 장인과 주변 인물(→똥손이)의 갈등1~2)을 보여 주고, ‘조수의 환영’은 ㉢<독 짓기>의 과정에서 장인의 고뇌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 요인3)을 드러낸다.

※내적 갈등 vs 외적 갈등에 대해 알아보자!

- ㄱ. 내적 갈등: 마음속 내면의 고민, 걱정 (짜장? 짬뽕? 무얼 먹지)
- ㄴ. 외적 갈등: 인물vs인물 / 인물vs사회 환경이 서로 대립

(부모와 자식 간의 가치관의 차이 / 자유를 빼앗은 일제에 대한 인물의 투쟁)

⑤

(가)

*송 영감: 1)이건 ‘흙덩이다!’→(미적 기준을 만족x) 가마 앞에 달려가 망치를 든다.

송 영감: 닥쳤! 이건 부정을 탔어! 모두 쳐부셔야 했! 밀어붙이며 달려가 미친 사람처럼 ㉠독을 박살 내기 시작한 다.

*옥수 귀엔 언제까지나 확대되어 가는 박살 나는 독 소리. 송영감 ‘조각난 독을 쓸어안고 오열’해 운다. 석양에 물든 하늘.

(나)

*~송 영감은 2)일어났다가는 쓰러지고, 일어났다가는 쓰러지고→(송 영감의 열의) 하면서도 ‘독 짓기를 그만두려고 하지는 않’았다.

⇒㉠<독을 박살 내기>의 행동 이후 ‘조각난 독을 쓸어안고 오열하는’ 것은 미적 가치 추구의 어려움1)을, ㉢<독 짓기>를 ‘그만두려고 하지는 않’는 것은 미적 가치의 실현에 대한 열의2)를 드러낸다.

22. <시나리오+소설>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85%	①	②	③	④	⑤
	5%	3%	85%	3%	4%

◆정답 ③

(가)

석현: ㉠(잡으며) 안됩니다! 1)성한 것두 있어요!

송 영감: 닥쳐! 2)이건 부정을 댔어! 모두 쳐부셔야 했!

⇒같은 대상에 대해 <석현>은 성한 것1), <송 영감>은 부정을 타서 쳐부셔야 할 것2)으로 보기 때문에 ㉠은 독의 완성도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서로 다름(실용성↔미적 만족감)을 보여 준다.

◆오답 풀이

①

(가)

옥수 일어나려는 송 영감을 부축하며 약그릇을 대 준다. 약을 마시는 송 영감.

송 영감: (걱정스럽게) 가만 어떻게 됐지?

옥수: ㉠저녁때 독을 끌어내야죠.....

⇒송 영감의 물음에 옥수는 대답을 하지만 말을 흐리는 것으로 보아 독 보다는 '송 영감'의 걱정이 더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약을 챙겨주는 옥수의 모습을 통해 옥수의 걱정이 송 영감 보다는 독에 가있다는 선지 ①은 적절하지 않음을 더욱 확신 할 수 있다.

②

(가)

송 영감: (혼잣말처럼) 이럴 수가.....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는데.....이게 내가 만든 독이야! 1)(절망) 아냐! 이건 독이 아냐! (계속 보며) 이것두! 이것두.....(비통하게) 이건 흙덩이다!→(송 영감의 엄한 미적 기준)가마 앞에 달려가 망치를 든다.

웁손이: ㉠아니 여보게! 무슨 짓인가!

⇒㉠은 송 영감의 엄한 미적 기준1)을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대화인 것이지 '송 영감'의 행동의 오만함과는 상관이 없다.

*오만함: 태도나 행동이 건방지거나 거만함.

④

(나)

*차차 송 영감의 숨씨에는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 더구나 조마구와 부채마치로 두드려 올릴 때, 1)떠뜯 눈앞에 아내와 조수의 환영이 떠오르면 짓던 독을 때리는지 아내와 조수를 때리는지 분간 못 하는 새→(건강이 안 좋음), 2)독이 그만 얇게 못나게 지어 지곤 했다. 그리고 전을 잡는 손이 떨려, 가뜩이나 제일 힘든 마무리의 전이 잘 잡히지를 않았다. 3)열 때문도 있었다. 송 영감은 ㉠쓰러지듯이 짓던 독 옆에 놓고 말았다.

⇒㉠:'송 영감'이 독을 제대로 구워 내지 못하는 것2)은 가마 때문이 아니라 송 영감의 건강 상태1,3)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마에 불만을 품고 있다는 ④는 적절하지 않다.

⑤

(나)

*언제부터인가 바깥 저녁 그늘 속에 <애>가 ㉠남쪽 장길을 향해 쫓그리고 앉아 있었다. 어머니를 기다리는 거리라. 언제나처럼 장 보러 간 1)<어머니>가 언제나처럼 저녁때면 <조수>에게 장감을 지워 가지고 돌아올 줄로만 아직 아는가 보다.

⇒㉠은 '애'가 장난감을 가진 조수와 어머니가 올 것1)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23. <현대소설>

#공통 선지의 법칙 #서술 방식 #간접_직접 #갈등

#서술자의 개입 #발화_생각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80%	①	②	③	④	⑤
	10%	3%	4%	80%	3%

◆정답 ④

[A]

*1)영감은 확 분노가 치밀어, 누가 거랑질해 오라더냐고 밥그릇을 밀쳐 놓자 애가 홀쩍홀쩍 울기 시작했다.

⇒서술자가 인물(→영감)의 분노를 직접적으로 제시1)함으로써, 상황에 대한 인물(→영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성격, 심리, 태도 등)의 직접적 제시냐, 간접적 제시냐는 자주 출제되는 요소이다.

*직접 제시: 전지적 작가 시점의 서술자가 직접 관련된 어휘 사용

*간접 제시: 인물의 대화, 행동을 통해 객관적으로 제시됨

◆오답 풀이

①

[A]

*다음에 송 영감이 정신이 든 것은 아주 어두운 속에서 애가 흔들려 깨워서였다.~자신은 입맛을 잃은 탓만도 아닌 1)무엇이 밥 넘기려는 목을 치밀어 올라오곤 해, 줌처럼 밥을 넘길 수가 없었다.

⇒시간의 흐름을 단계적으로 보여 주려면, (과거→현재→미래)이거나 최소한 (과거→현재 / 현재→미래)를 나타내야 한다. [A]에는 '송 영감이 깨어나서 저녁을 먹기'까지의 시간의 흐름은 분명했으나 이것이 단계적으로 보여 준다고 보기엔 애매하다.

(☆실제 시험 때는 이런 애매한 것을 깊게 파고들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부각하는 것은 확실히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갈등>이 있음을 암시하는 표현1)이 보일 뿐이다.

※내적 갈등 vs 외적 갈등에 대해 알아보자!

ㄱ.내적 갈등: 마음속 내면의 고민, 걱정 (짜장, 짬뽕 무엇을 먹지)

ㄴ.외적 갈등: 인물vs인물 / 인물vs사회 환경이 서로 대립 (부모와 자식 간의 가치관의 차이/자유를 빼앗은 일제에 대한 인물의 투쟁)

▶소설은 인물의 갈등이 시작되어 끝나기까지의 과정이기에 소설 지문을 대할 때에는 갈등이 있을지 없을지를 고민하지 말고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고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자!

②

[A]

*1)웬 거냐고 하니까 애가, 앵두나뭇집 할머니가 주더라고 한다. *이번에는 애보고, 2)맛있으니 너도 먹으라는 것이었으나,

⇒서술자의 의해 인물의 대화가 간접적으로 제시1~2)되어 있지만 서술자의 개입이 이루어진 것도 없고 인물에 대한 평가가 제시되지도 않았다.

◆1)의 대화 복원,

송 영감: 웬 거냐?

아이: 앵두나뭇집 할머니가 준 거예요.

☞2)는 송 영감의 말만 있지만 상대를 향한 말이기엔 독백이 아닌, 충분히 대화로 성립된다.

※편집자적 논평(≒서술자의 개입)

ㄱ.서술자가 인물 및 상황에 대해 감정 반영, 해석, 판단 등의 주관적 서술이 뚜렷함. -(산천초목이 슬퍼하며)

ㄴ.서술자가 작품 속의 인물인 듯한 말투를 사용. -(~더라, ~리오, ~것다, ~렀다 등)

☞(느낌표가 있어 감정이 드러나면 편집자적 논평일 가능성이 높다)

[지문 변형] 즉시 별당을 깨끗이 치우고 잔치를 배설하여 토끼를 정으로 칭하여 상좌에 앉히고 별주부 내외 당하에 꿇어 백배 애걸한다. 별주부 내외 참으로 곤란하겠구나! 곤란하겠어!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의 개입>은 <전지적 작가 시점>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전지적 작가 시점>의 서술이 모두 <서술자의 개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서술자의 개입>과 <편집자적 논평>은 거의 유사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두 개념을 구분하는 문제는 당연히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불필요하게 공부할 필요가 없다.

③

[A]

*1)웬 거냐고 하니까 애가, 앵두나뭇집 할머니가 주더라고 한다. *자신은 입맛을 잃은 탓만도 아닌 무엇이 밥 넘기려는 목을 치밀어 올라오곤 해, 줌처럼 밥을 넘길 수가 없었다.→(내적 갈등)

⇒새로운 인물(→앵두나뭇집 할머니)이 다른 인물(→애)의 발화를 통해 등장하지만 인물 간의 대립 구도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발화 vs 생각>에 대해 알아보자!

ㄱ.발화: 의미를 가진 문장을 말하는 것. 큰 따옴표 사용.

ㄴ.생각: 말하지 않은 속 마음, 작은 따옴표 사용.

* '승상이 별세하신 지 오래이거늘 어찌 이곳에 계신가?'

→ 생각○, 발화 ×

☞ 지문 [A]의 경우에는 발화를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가 없다.

⑤

[A]

*1)<송 영감>은 확 분노가 치밀어, 누가 거랑질해 오라더냐고 밥그릇을 밀쳐 놓자 2)<애>가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

⇒인물들의 심리 상태를 알 수 있는 표현1~2)은 있어도 이를 공간적 거리와 결부한 것은 없다.

◆공간적 거리와 심리 거리감?

☞공간적 거리가 멀수록 인물의 심리적 거리감도 멀어지리라는 단순한 연결은 해 볼 수 있지만 <송 영감>과 <아이>는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되지 않는다.

24. <시나리오+소설>

#1항목 후순위의 법칙 #보기 제시 #감상 #3점 #심상과 감각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75%	①	②	③	④	⑤
	11%	3%	8%	3%	75%

◆정답 ⑤

<보기>

인물들의 행동과 대사를 통해 1)인물의 성격을 드러냄으로써 개연성을 높였다.

⇒(가)의 ‘마치 자기 심장이 박살 나는 것처럼 느껴지는’은 시각적 묘사를 통해 여리고 감정적인 성격을 드러낸다1)고 볼 수 있지만 (나)의 ‘제힘만이 아닌 어떤 힘으로 벌떡 일어나’에서는 시각적 묘사가 없다.

▶<시각적 묘사>에서 <시각적>은 시에서 흔히 사용되는 <시각적 심상>에 대응된다. (*박살 나는 모양→시각적)

※심상과 감각에 대해 알아보자!

- ㄱ.시각-눈으로 보는 것 (푸른 산, 높은 하늘, 빨간 꽃)
- ㄴ.청각-귀로 듣는 소리 (은은한 종소리)
- ㄷ.미각-혀가 느끼는 맛 (쓰디쓴 약)
- ㄹ.후각-코로 맡는 냄새 (향기로운 꽃)
- ㅁ.촉각-피부의 느낌 (서늘한 옷자락)

☞<시각적 심상>은 눈으로 보이는 것 중 색깔, 모양, 크기, 움직임 등과 관련이 있으면 해당된다. 이러한 시각적 심상을 빼고 시를 창작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시는 일단 감각적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오답 풀이

①

(가)

1)그의 시선은 구석에 놓인 백자기에 가 있다. 2)햇볕을 받아 더욱 고담한 3)백자기의 형체.

<보기>

인물들의 행동과 대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냄으로써 4)개연성을 높였다.

⇒(가)에서는 ‘백자기의 형체’3)가 ‘햇볕을 받아 더욱 고담’2)하다고 함으로써 이를 바라보는 행위1)에 개연성을 더하고 있다.4)

*고담하다: 글이나 그림 따위의 표현이 꾸밈이 없고 담담하다.

*개연성: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만약, 백자기가 고담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백자기를 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고담한 백자기가 그의 시선이 가게끔 하는 개연성을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②

⇒(가)에서는 ‘나가떨어지는’은 웅손이가 송 영감에 의해 저지당하는 모습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상황에 대한 현실감이 느껴진다.

▶‘구체적’, ‘사실적’, ‘현실감’, ‘생생함’, ‘의성어 혹은 의태어’ 사용 등은 모두 같은 맥락에서 사용되는 어휘들이다.

③

(가)

㉔ 뚱왕! 뚱왕! 뚱왕!

옥수 귀엔 언제까지나 확대되어 가는 박살 나는 독 소리. 1)송영감 조각난 독을 쓸어안고 오열해 운다.

<보기>

또한 2)영화 기법 용어들의 사용과 지시문을 통한 시각적 묘사는 현실감을 높이고 3)현장성을 강화하고 있다.

⇒(가)에서는 ‘뚱왕 뚱왕 뚱왕’의 효과음을 이용2)하여 현장성을 강조3)하고 인물의 내면적 반응1)을 드러내고 있다.

④

⇒(나)의 ‘못나게 지어지곤 했다’와 같이 진술되는 내용이 (가)에서는 ‘비틀어진 독’과 같은 구체적인 사물에 대한 시각적 묘사로 현실감을 높이고 있다.

♠ ‘못나게 지어지곤 했다’가 문장이 더 길다고 해서 ‘비틀어진 독’보다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독이 못나게 지어짐’ (구체적으로 어떻게 못났다는 거지?)

→‘독이 비틀어짐.’으로 생각해야 한다.

▶<구체적 vs 추상적>을 비교 판단하는 것은 자주 출제되는 요소이다.

★1항목 후순위의 법칙

☞문제의 지문 혹은 제시문이 (가), (나) 등의 항목별로 나열되어 있고 선지에서는 그 항목을 1개 혹은 2개 이상을 가져와 설명한다. 이때 <항목을 1개만 가져와 설명하는 선지>가 정답이 될 가능성은 <항목을 2개 이상 가져와 설명하는 선지>보다는 많이 낮은 편이다.

위 문제의 경우 선지 ①~③이 (가) 1개만을 활용하여 설명하는데 다른 선지보다는 정답이 될 가능성이 낮다. 이를 고려하고 항목 2개 이상을 가져와 설명한 선지 ④, ⑤를 먼저 더욱 집중해서 보는 것은 정답을 조금이라도 빨리 만날 수 있는 풀이법이다.

☞위와 같은 문제만이라도 선지를 꼭 ①에서 ⑤의 순서대로 봐야한다는 고정관념을 깨자. 작은 습관의 변화가 정답의 정확성을 높이고 수능 국어의 생명인 문제 풀이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25~30, <콘크리트의 특성과 발전>

*주제: 콘크리트를 통해 본 건축 재료와 건축 미학의 관계

- 1)▶ 콘크리트는 이미 고대 로마 시대에도 사용.
 *판테온의 돔: 콘크리트의 골재 배합을 달리하면서 지붕을 가볍게 하고 원형 내부 공간과 연결.
- 2)*콘크리트의 성질: 물과 만나면 점성을 띠는 상태가 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화 반응이 일어나 골재, 물, 시멘트가 결합하면서 굳어짐.
 -수화 반응은 상온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작업에 편리.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구조물이 가능.
 -강도와 밀도를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 3)*철근 콘크리트: 더욱 견고해지고, 다양하고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
 *압축 강도: 단위 면적당 압축력에 의해 재료가 견디는 힘.
 *인장 강도: 단위 면적당 인장력에 의해 재료가 견디는 힘.
 ▶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는 인장 강도보다 10배 이상 높음.
 ▶ 압축력으로 인한 길이 > 인장력으로 인한 길이
 ▶ 보강재인 철근으로 인장력을 많이 받는 부분에 보강한다.
- *포아송비: 가해진 힘의 방향에 수직인 방향으로 재료의 변형 고려. 철재(0.3) > 콘크리트(0.15)
- 4)사보아 주택: 기둥만으로 건물 본체의 하중을 지탱하도록 설계. →건물이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느낌.
- 5)*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제작 방법:
 -거푸집에 철근을 넣고 철근을 당긴 상태에서 콘크리트 반죽과 혼합.
 -콘크리트가 굳은 뒤에 당기는 힘을 제거
 -콘크리트에 압축력이 작용하여 외부의 인장력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짐.
 *킴벨 미술관: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구조를 활용하여 기둥 사이를 30m이상 벌리고 내부의 전시 공간을 하나의 층으로 만듦.
- 6)▶ 건축 재료와 건축 미학의 유기적 관련성.

25. <기술>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89%	89%	2%	3%	1%	5%

◆정답 ①

1)로마 시대의 탁월한 건축미를 보여 주는 <판테온>은 콘크리트 구조물인데, 반구형의 지붕인 돔은 오직 콘크리트로만 이루어져 있다.~→(건축물의 공간적 특징) [1문단]

2)<콘크리트>는 시멘트에 모래와 자갈 등의 골재를 섞어 물로 반죽한 혼합물이다.~→(건축 재료의 특성) [2문단]

3)<콘크리트>가 철근 콘크리트로 발전함에 따라 건축은 구조적으로 더욱 견고해지고, 형태 면에서는 더욱 다양하고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해졌다.~→(건축 재료의 발전) [3문단]

4)<사보아 주택>은, 벽이 건물의 무게를 지탱하는 구조로 설계된 건축물과는 달리 기둥만으로 건물 본체의 하중을 지탱하도록 설계되어 건물이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건축물의 공간적 특징) [4문단]

5)<킴벨 미술관>은 개방감을 주기 위하여 기둥 사이를 30m이상 벌리고 내부의 전시 공간을 하나의 층으로 만들었다.~→(건축물의 공간적 특징) [5문단]

⇒건축 재료(→콘크리트)의 특성2)과 발전3)을 서술하면서 각 건축물들의 공간적 특징1,4,5)을 설명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1)<콘크리트>는 시멘트에 모래와 자갈 등의 골재를 섞어 물로 반죽한 혼합물이다.~→(건축 재료의 특성) [2문단]

⇒건축 재료의 특성1)은 제시되어 있지만 건축물들(→판테온, 사보아 주택, 킴벨 미술관)의 특징은 1,4,5문단에 각기 설명되어 있을 뿐이지 이들을 서로 비교하고 상반된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③

*일반적으로 <콘크리트>가 근대 기술의 산물로 알려져 있지만 콘크리트는 이미 고대 로마 시대에도 사용되었다. [1문단]

⇒<콘크리트>가 고대 로마 시대에도 사용되었음을 언급했을 뿐이지 기원을 검토한 것은 아니며, 건축물들(→판테온, 사보아 주택, 킴벨 미술관)의 미학적 특성은 1,4,5문단에 각기 설명되어 있지만 그 한계를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기원: 사물이 처음으로 생김

④

*<콘크리트>의 골재는 종류에 따라 1)강도와 밀도가 다양하므로 골재의 종류와 비율을 조절하여 콘크리트의 강도와 밀도를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2문단]

*<콘크리트>가 철근 콘크리트로 발전함에 따라 건축은 구조적으로 더욱 2)견고해지고, 형태 면에서는 더욱 다양하고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해졌다. [3문단]

*3)강도가 높고 지지력이 좋아진 철근 <콘크리트>를 건축 재료로 사용하면, 대형 공간을 축조하고 기둥의 간격도 넓힐 수 있게 되었다. [4문단]

⇒건축 재료의 시각적 특성이 아닌, 강도를 중심으로 설명1~3)한 것이며 각 재료와 건축물들의 경제적 가치를 탐색한 것은 없다.

⑤

*로마 시대의 탁월한 건축미를 보여 주는 <판테온>은 콘크리트 구조물인데, 반구형의 지붕인 돔은 오직 콘크리트로만 이루어져 있다. [1문단]

*20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근대 건축에서 철근 콘크리트는 예술적 영감을 줄 수 있는 재료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사보아 주택>은, 벽이 건물의 무게를 지탱하는 구조로 설계된 건축물과는 달리 기둥만으로 건물 본체의 하중을 지탱하도록 설계되어 건물이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4문단]

*철근 콘크리트는 근대 이후 가장 중요한 건축 재료로 널리 사용되어 왔지만~<킴벨 미술관>은 개방감을 주기 위하여 기둥 사이를 30m이상 벌리고 내부의 전시 공간을 하나의 층으로 만들었다. [5문단]

⇒시대별(→로마, 근대, 근대 이후)로 건축물들(→판테온, 사보아 주택, 킴벨 미술관)의 특징은 나타나 있지만 그 평가가 시대에 따라 달라진 원인을 제시한 것도 없으며 이를 건축 재료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지도 않다.

26. <기술>

#1항목 후순위의 법칙 #이해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80%	3%	2%	6%	9%	80%

◆정답 ⑤

*<사보아 주택>은,~2층 거실을 둘러싼 벽에는 수평으로 긴 창이 나 있고, 건축가가 '건축적 산책로'라고 이름 붙인 경사로는 1)지상의 출입구에서 2층의 주거 공간으로 이어지다가 다시 테라스로 나와 지붕까지 연결된다. [4문단]

*<킴벨 미술관>은 개방감을 주기 위하여 기둥 사이를 30m이상 벌리고 2)내부의 전시 공간을 하나의 층으로 만들었다. [5문단]

⇒<킴벨 미술관>은 내부의 전시 공간을 하나의 층2)으로 만들었기에 층을 구분하지 않았지만 <사보아 주택>은 지상과 2층이 구분1)되어 있다.

▶<사보아 주택>의 2층 거실이라는 말에서 <킴벨 미술관>에 대한 내용까지 보지 않더라도 신속하게 선지 ⑤가 적절하지 않음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로마 시대의 탁월한 건축미를 보여 주는 <판테온>은 콘크리트 구조물인데,~로마인들은 콘크리트의 골재 배합을 달리하면서 1) 돔의 상부로 갈수록 두께를 점점 줄여 지붕을 가볍게 할 수 있었다. [1문단]

⇒<판테온>의 돔에서 상부로 갈수록 두께가 줄기1)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얇은 부분이 상부 쪽이다.

②

*<사보아 주택>은,~평평하고 넓은 1)<지붕>에는 정원이 조성되어, 여기서 산책하다 보면 대지를 바다 삼아 향해하는 기선의 갑판에 서 있는 듯하다. [4문단]

⇒<사보아 주택>의 <지붕>에는 정원이 조성1)되어 있어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되었다.

③

*철근 콘크리트는 근대 이후 가장 중요한 건축 재료로 널리 사용되어 왔지만 1)철근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를 높이려는 연구가 계속되어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가 등장하였다.~<킴벨 미술관>은 2)개방감을 주기 위하여 기둥 사이를 30m이상 벌리고 내부의 전시 공간을 하나의 층으로 만들었다. 이 간격은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구조를 활용하였기에 구현할 수 있었고,

[5문단]

⇒<김벨 미술관>은 철근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를 높이는 방법을 이용(→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하여 1) 넓고 개방된 내부 공간을 확보2)하였다.

④

*로마 시대의 탁월한 건축미를 보여 주는 <판테온>은 콘크리트 구조물인데,~지붕의 중앙에는 지름 9m가 넘는 1)원형의 천장을 내어 빛이 내부 공간을 채울 수 있도록 하였다. [1문단]

*<사보아 주택>은,~목욕실 2)지붕에 설치된 작은 천장을 통해 하늘을 바라보면 이 주택이 자신을 중심으로 펼쳐진 또 다른 소 우주임을 느낄 수 있다. [4문단]

⇒<판테온>과 <사보아 주택>은 모두 천장을 두어 빛이 위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1~2) 하였다.

★1항목 후순위의 법칙

☞문제의 지문 혹은 제시문이 (가), (나), (다) 등의 항목별로 나열되어 있고 선지에서는 그 항목을 1개 혹은 2개 이상을 가져와 설명한다. 이때 <항목을 1개만 가져와 설명하는 선지>가 정답이 될 가능성은 <항목을 2개 이상 가져와 설명하는 선지>보다는 많이 낮은 편이다.

위 문제의 경우 선지 ①~③이 각각 판테온, 사보아 주택, 김벨 미술관 등 1개만을 활용하여 설명하는데 다른 선지보다는 정답이 될 가능성이 낮다. 이를 고려하고 항목 2개 이상을 가져와 설명한 선지 ④, ⑤를 먼저 더욱 집중해서 보는 것은 정답을 조금이라도 빨리 만날 수 있는 풀이법이다.

“위와 같은 문제만이라도 선지를 꼭 ①에서 ⑤의 순서대로 봐야한다는 고정관념을 깨자. 작은 습관의 변화가 정답의 정확성을 높이고 수능 국어의 생명인 문제 풀이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27. <기술>

#추론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78%	8%	6%	6%	78%	2%

◆정답 ④

*먼저, 거푸집에 철근을 넣고 철근을 당긴 상태에서 콘크리트 반죽을 붓는다. 콘크리트가 굳은 뒤에 (철근의) 당기는 힘을 제거하면, 1)철근이 줄어들면서 →(철근의 복원) 2)콘크리트에 압축력이 작용하여 3)외부의 인장력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진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가 만들어진다. [5문단]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는 철근이 복원되려는 성질1)을 이용하여 콘크리트에 압축력2)을 줌으로써 인장 강도를 높인 것3)이다.

*인장: 어떤 힘이 물체의 중심축에 평행하게 바깥 방향으로 작용할 때 물체가 늘어나는 현상.

*(인장의 저항성↑)=(인장 강도↑)

◆오답 풀이

①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는 누르는 힘인 압축력에는 쉽게 부서지지 않지만 1)당기는 힘인 <인장력>에는 쉽게 부서진다.~그런데 철근이나 철골과 같은 2)<철재>는 인장력과 압축력에 의한 변형 정도가 콘크리트보다 작은 데다가 압축 강도와 <인장 강도> 모두가 <콘크리트>보다 높다. →(인장 강도는 ‘철재’가 ‘콘크리트’보다 크다) ~따라서 3)보강재로 철근을 콘크리트에 넣어 대부분의 인장력을 철근이 받도록 하면 인장력에 취약한 콘크리트의 단점이 크게 보완된다. [3문단]

⇒당기는 힘인 인장력1)에 대한 저항성, 즉 <인장력>에 버틸 수 있는 힘인 <인장 강도>는 ‘철재’가 ‘콘크리트’보다 크다.2) 또한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를 높이기 위해 철근을 혼합3)한 <철근 콘크리트>이더라도 순수한 <철재>보다는 <인장 강도>가 높은 것은 아니다.

☞순수한 ‘철재’의 인장 강도 > ‘철근+콘크리트’의 인장 강도 (*쉽게 비유하자면, ‘순수한 설탕 덩어리’와 ‘설탕을 넣어 만든 과자’의 당도를 비교하면 당연히 ‘순수한 설탕 덩어리’가 win!)

◆지문 2)를 분석해보면,

- i. <철재>는 <인장력>~의한 변형 정도가 <콘크리트>보다 작음.
- ii. <철재>는~<인장 강도> 모두가 <콘크리트>보다 높음.

*인장력의 변형 정도가 작음=인장 강도가 강함

→인장력에 대한 저항성이 강함

☞(결국엔, 논리적으로 i = ii가 된다)

②

*따라서 보강재로 철근을 콘크리트에 넣어 1)대부분의 <인장력>을 철근이 받도록 하면 <인장력>에 취약한 콘크리트의 단점이 크게 보완된다. [3문단]

⇒일반적으로 철근을 콘크리트에 보강재로 사용할 때는 압축력이 아닌, <인장력>을 많이 받는 부분에 넣어 콘크리트의 단점을 보완1)한다.

③

*<콘크리트>에서 결합재 역할을 하는 시멘트가 물과 만나면 점성을 띠는 상태가 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1)<수화 반응>이 일어나 골재, 물, 시멘트가 결합하면서 굳어진다. [2문단]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는 다음과 같이 제작된다. 먼저, 거푸집에 철근을 넣고 철근을 당긴 상태에서 콘크리트 반죽을 붓는다. 2)콘크리트가 굳은 뒤에~[5문단]

⇒<콘크리트>가 굳어지려면 <수화 반응>을 거쳐야1) 하는데,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제작 과정에서도 콘크리트가 굳는 과정이 있기2) 때문에 <수화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⑤

*그리고 골재들 간의 접촉을 높여야 1)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2)<서로 다른 크기>의 골재를 배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2문단]

⇒반대로, 콘크리트의 강도를 높이는 데1)에는 크기가 다양한2) 자갈을 사용하는 것이 균일한 크기의 자갈만 사용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다.

♣ 발문 유형별 지문과 선지의 정오판단

- i 윗글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 ii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iii 윗글을 통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i : 지문의 문장 거의 있는 그대로 1문장 정도로 선지의 정오판단 가능
- ii : i의 수준 혹은 지문의 문장 50%이하 변형된 1~2문장 정도로 선지의 정오판단 가능
- iii : 지문의 문장 50%이상 변형된 2문장 정도로 선지의 정오판단 가능

♣ 비문학 일치-불일치 유형 발문 별 난이도

(윗글을 통해 바르게 추론한 것은?) ≥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윗글과 일치하는 것은?)

28. <기술> ☆오답률 4위☆ (평가원 4개년 중 4위)

#1항목 후순위의 법칙 #보기 제시 #탐구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34%	10%	19%	23%	34%	14%

◆정답 ④

*또한 가해진 힘의 방향에 수직인 방향으로 재료가 변형되는 점도 고려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포아송비>이다. 1)철재는 콘크리트보다 포아송 비가 크며, 대체로 <철재>의 포아송 비는 0.3, <콘크리트>는 0.15정도이다. [3문단]

<보기>

2)<철재>만으로 제작된 원기둥 A와 <콘크리트만>으로 제작된 원기둥 B에 힘을 가하며 변형을 관찰하였다. A와 B의 윗면과 아랫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3)압축력을 가했더니 높이가 줄어들면서 4)지름은 늘어났다.~이때 5)지름의 변화량의 절댓값을 높이의 변화량의 절댓값으로 나누어 <포아송 비>를 구하였더니, 6)일반적으로 알려진 철재(30/100)와 콘크리트(15/100)의 포아송 비와 동일하게 나왔다.

※<보기>의 5)를 통해 다음을 알 수 있다.
 <포아송 비>= 지름/높이 (*각각 변화량의 절댓값)

⇒A(철재)와 B(콘크리트)에2) 압축력을 가했을 때 줄어든 높이 3)의 변화량이 같다면, (이때, '포아송 비'의 상대적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자'에 해당하는 '지름'이다) <포아송 비>는 '철재'(→30/100)가 '콘크리트'(→15/100) 보다 크기1)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지름'은 A(철재)가 더 늘어나게 된다.4)

☞<보기>에서 6)은 <철재>와 <콘크리트> 각각의 '포아송 비'가 1)과 같이 기존과 동일하게 나온 것이지, ('철재'의 포아송 비)=(콘크리트'의 포아송 비)가 아님에 유의하자.

◆오답 풀이

①

*그런데 철근이나 철골과 같은 1)<철재>는 인장력과 '압축력'에 의한 변형 정도가 <콘크리트>보다 작은 데다가 압축 강도와 인장 강도 모두가 콘크리트보다 높다. [3문단]

<보기>

2)<철재>만으로 제작된 원기둥 'A'와 <콘크리트만>으로 제작된 원기둥 'B'에 힘을 가하며 변형을 관찰하였다.

⇒<철재>는 <콘크리트>보다 '압축력'에 의한 변형 정도가 작기 1) 때문에 동일한 압축력을 가했다면 B(콘크리트)는 A(철재)보다 높이가 더 늘어났을 것이다.

* (변형이 잘 되는 것)=(변형 정도가 큼)
 →더 잘 줄어들거나 잘 늘어남.

②

*또한 가해진 힘의 방향에 수직인 방향으로 1)재료가 변형되는 점도 고려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포아송비>이다. 철재는 콘크리트보다 포아송 비가 크며, 2)대체로 <철재>의 포아송 비는 0.3, <콘크리트>는 0.15정도이다. [3문단]

<보기>

이때 지름의 변화량의 절댓값을 높이의 변화량의 절댓값으로 나누어 <포아송 비>를 구하였더니,

→(포아송 비: 지름/높이) *각각 변화량의 절댓값

⇒A(철재)에 인장력을 가했다면 재료의 변형이 일어나며 1) <철재>의 포아송 비(3/10) 고려2)하면, (포아송 비: 지름/높이)에 의해 '높이'의 변화량의 절댓값(→10)은 '지름'의 변화량의 절댓값(→3)보다 컸을 것이다.

③

*또한 가해진 힘의 방향에 수직인 방향으로 1)재료가 변형되는 점도 고려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포아송비>이다. 철재는 콘크리트보다 포아송 비가 크며, 대체로 <철재>의 포아송 비는 0.3, 2)<콘크리트>는 0.15정도이다. [3문단]

<보기>

이때 지름의 변화량의 절댓값을 높이의 변화량의 절댓값으로 나누어 <포아송 비>를 구하였더니,

→(포아송 비: 지름/높이) *각각 변화량의 절댓값

⇒B(콘크리트)에 압축력을 가했다면 재료의 변형이 일어나며 1) <콘크리트>의 포아송 비(15/100) 고려2)하면, (포아송 비: 지름/높이)에 의해 '지름'의 변화량의 절댓값(→15)은 '높이'의 변화량의 절댓값(→100)보다 작았을 것이다.

⑤

*또한 가해진 힘의 방향에 수직인 방향으로 재료가 변형되는 점도 고려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포아송비>이다. 1)'철재'는 '콘크리트'보다 포아송 비가 크며, 대체로 <철재>의 포아송 비는 0.3, <콘크리트>는 0.15정도이다. [3문단]

<보기>

2)<철재>만으로 제작된 원기둥 A와 <콘크리트만>으로 제작된 원기둥 B에 힘을 가하며 변형을 관찰하였다. A와 B의 윗면과 아랫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압축력을 가했더니 높이가 줄어들면서 3)지름은 늘어났다.~이때 4)지름의 변화량의 절댓값을 높이의 변화량의 절댓값으로 나누어 <포아송 비>를 구하였더니, 5)일반적으로 알려진 철재(→30/100)와 콘크리트(→15/100)의 포아송 비와 동일하게 나왔다.

※<보기>의 4)를 통해 다음을 알 수 있다.

<포아송 비>= 지름/높이 (*각각 변화량의 절댓값)

⇒A(철재)와 B(콘크리트)에 2) 압축력을 가했을 때 늘어난 '지름'의 변화량이 같다면, (이때, '포아송 비'의 상대적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모'에 해당하는 '높이'이다) <포아송 비>는 '철재'가 '콘크리트'보다 크기1)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A(철재)의 높이가 B(콘크리트)의 높이보다 덜 줄어들었을 것이다.

→(A의 분모가 B의 분모보다 더 작아짐)

→(포아송 비는 A가 B보다 커짐)

☞그래야만, 높이(→분모)의 변화가 더 큰 B(콘크리트)의 포아송 비가 A(철재)보다는 작아지게 된다.

☞<보기>에서 5)는 <철재>와 <콘크리트> 각각의 '포아송 비'가 1)과 같이 기존과 동일하게 나온 것이지만, ('철재'의 포아송 비)=(콘크리트'의 포아송 비)가 아님에 유의하자.

★1항목 후순위의 법칙

☞문제의 지문 혹은 제시문이 A, B 등의 항목별로 나열되어 있고 선지에서는 그 항목을 1개 혹은 2개 이상을 가져와 설명한다. 이때 <항목을 1개만 가져와 설명하는 선지>가 정답이 될 가능성은 <항목을 2개 이상 가져와 설명하는 선지>보다는 많이 낮은 편이다.

위 문제의 경우 선지 ②,③이 각각 A 혹은 B, 1개만을 활용하여 설명하는데 다른 선지보다는 정답이 될 가능성이 낮다. 이를 고려하고 항목 2개 이상을 가져와 설명한 선지 ①,④,⑤를 먼저 더욱 집중해서 보는 것은 정답을 조금이라도 빨리 만날 수 있는 풀이법이다.

“위와 같은 문제만이라도 선지를 꼭 ①에서 ⑤의 순서대로 봐야한다는 고정관념을 깨자. 작은 습관의 변화가 정답의 정확성을 높이고 수능 국어의 생명인 문제 풀이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29. <기술>

#비교형 선지 정답 #보기-선지의 법칙 #추론 #3점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78%	4%	10%	5%	78%	3%

◆정답 ④

<보기>

철근 콘크리트 대신 1)<철골>을 사용하여 기둥을 만들면 더 '가는 기둥'으로도 간격을 더욱 벌려 세울 수 있어 훨씬 넓은 공간 구현이 가능하다.

⇒반대로, '가는 기둥'들이 넓은 간격으로 늘어선 건물을 지을 때 기둥의 재료로는 <철골>이 철근 콘크리트보다 더 적합하다.1)

◆오답 풀이

①

<보기>

철근 콘크리트 대신 <철골>을 사용하여 기둥을 만들면 더 가는 기둥으로도 간격을 더욱 벌려 세울 수 있어 훨씬 넓은 공간 구현이 가능하다. 하지만 1)<철골은> 산화되어 녹이 슨다는 단점이 있어 내식성 페인트를 칠하거나 콘크리트를 덧입히는 등 ‘산화 방지’ 조치를 하여 사용한다.

2)<베를린 신국립미술관>은 <철골>의 기술적 장점을 미학적으로 승화시킨 건축물이다.

⇒<철골>은 ‘산화 방지’ 조치를 하여 사용1)하는데, <베를린 신국립미술관>이 이러한 <철골>을 활용하였기2) 때문에 기둥에는 ‘산화 방지’ 조치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보기>

<철골>은 매우 높은 강도를 지닌 건축 재료로, 규격화된 1)직선의 형태로 제작된다.

⇒<철골>은 직선의 형태로 제작되기1) 때문에 휘어진 곡선 모양의 기둥을 세우려 할 때는 대체로 <철골>을 재료로 쓰지 않는다.

③

*<킴벨 미술관>은 개방감을 주기 위하여 기둥 사이를 30m이상 벌리고 내부의 전시 공간을 하나의 층으로 만들었다. 이 간격은 1)<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구조를 활용하였기에 구현할 수 있었고, [5문단]

<보기>

<베를린 신국립미술관>은 2)<철골>의 기술적 장점을 미학적으로 승화시킨 건축물이다.~미술관 내부에 들어가면 넓은 공간 속에서 3)개방감을 느끼게 된다.

⇒<베를린 신국립미술관>은 ‘철골’2)을, <킴벨 미술관>은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1)를 활용하여 개방감을 구현3)했다.

⑤

*<사보아 주택>은, 벽이 건물의 무게를 지탱하는 구조로 설계된 건축물과는 달리 1)<기둥>만으로 건물 본체의 하중을 지탱하도록 설계되어 2)건물이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4문단]

<보기>

<베를린 신국립미술관>은 철골의 기술적 장점을 미학적으로 승화시킨 건축물이다. 거대한 평면 3)<지붕>은 여덟 개의 십자형 철골 <기둥>만이 떠받치고 있고,~내부 공간이 텅 비어 있어 지붕은 4)공중에 떠 있는 느낌을 준다.

⇒<베를린 신국립미술관의 지붕>과 <사보아 주택>의 건물이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을 주는 것2,4)은 벽이 아닌 <기둥>이 구조적으로 중요한 역할1,3)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굉장히 유용한 팁★

♣ 출제자의 심리: 잘못된 것을 묻는 부정형 발문에서 두 대상을 비교하는 선지가 나오면 그것이 정답일 확률은 상당히 높다! (2배, 3배 등 수치까지 나오면 더 확률이 높아짐) 왜냐하면, 출제자는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숫자 등을 사용해 틀린 선지를 만드는 일이 다른 오류가 있는 선지를 만드는 것보다 비교적 쉽기 때문에 수치가 들어간 선지를 정답으로 자주 설정한다.

*위 문제는 선지 ④에만 비교형 표현이 있다.

④~기둥의 재료로는 <철골>보다 <철근 콘크리트>가 더 적합하겠군. (정답☆)

※정답 선지만이 유일하게 수치 비교가 있음!

*(2016 수능 A 16번) 정답 선지
⑤형태가 일정한 물체의 회전 속도가 2배가 되면 회전 운동에너지는 2배가 된다.

*(2016 수능 A 18번) 정답 선지
④A에 가해 주는 힘만을 제거한 상태에서 원판이 두 바퀴 회전하는 동안 알짜 돌림힘이 한 일은 한 바퀴 회전하는 동안 알짜 돌림힘이 한 일의 4배이다.

*(2016 수능 B 22번) 정답 선지
③노나카는 암묵지가 그 속성 때문에 지식의 공유 가능성이 명시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본다.

☆한 시험에서 3 문제나! 이것은 우연이라기 보단 출제자의 심리가 반영된 결과이다! 5개의 선지 중에서 비교 형태의 선지가 있다면 이를 먼저 검토해봐야 정답을 1초라도 빨리 만날 수 있다.

★유용한 꿀 팁★

♣보기-선지의 법칙!

☞한 시험에서 <보기>가 제시된 문제 중 1~2문제는 지문이나 발문의 구체적 내용을 보지 않고도 보기-선지의 관련성만으로 답을 찾을 수 있다.

- ㄱ. 긍정 발문형: <보기>의 핵심과 가장 관련성 있는 선지가 정답
- ㄴ. 부정 발문형: <보기>의 핵심과 가장 동떨어진 선지가 정답

*위 문제는 부정 발문형으로,

<보기>: <철근 콘크리트> 대신 <철골>을 사용하여 기둥을 만들면 더 가는 기둥으로도 간격을 더욱 벌려 세울 수 있어~.

정답 ④: 가는 기둥들이 넓은 간격으로 늘어선 건물을 지을 때 기둥의 재료로는 <철골>보다 <철근 콘크리트>가 더 적할

☆시험 시간이 모자라 지문을 제대로 읽지 못할 때나 지문을 읽어도 정답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유용하게 활용해 볼 수 있다.

30. <어휘>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94%	3%	94%	1%	1%	1%

◆정답 ②

*지붕의 중앙에는 지름 9m가 넘는 ㉠원형의 천장을 내어 빛이 내부 공간을 채울 수 있도록 하였다.

㉠<원형>: 둥근 모양.
≠

*이 건축물은 후대 미술관의 원형(→본디의 꼴)이 되었다.

◆오답 풀이

①

*일반적으로 콘크리트가 근대 기술의 ㉡산물로 알려져 있지만

*<산물>: 어떤 것에 의하여 생겨나는 사물이나 현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근대 기술'에 의해 '콘크리트'가 생김.

*행복은 성실하고 꾸준한 노력의 <산물>이다.

→'노력'에 의해 '행복'이 생김.

③

*콘크리트에서 결합재 역할을 하는 시멘트가 물과 만나면 ㉢점성을 띠는 상태가 되며,

*이 물질은 <점성> 때문에 끈적끈적한 느낌을 준다.

*<점성>: 차지고 끈끈한 성질.

④

*대개는 인장력을 많이 받는 부분을 정확히 계산하여 그 지점을 ㉣위주로 철근을 보강한다.

*그녀는 채소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고 있다.

*<위주>: 으뜸으로 삼음.

⑤

*20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근대 건축에서 철근 콘크리트는 예술적 ㉤영감을 줄 수 있는 재료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그의 발명품은 형의 조언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다.

*<영감>: 창조적인 일의 계기가 되는 기발한 착상이나 자극.

“커뮤니티 후기”

*국어 고자인데요. 9평 콘크리트같은 지문 끝까지 쪽 다 읽고 푸신건가요??어떻게 그렇게 긴 지문을 πππ /얏흥얏흥

↳콘크리트지문 다맞았는데 문제가 그렇게 어렵다고 느끼진못함 그냥 길다 이런느낌 문제들은 지문에 답다있어서 무난하게 풀 거같아요 /하반신의법선벡터

↳콘크리트는 별로 안어려웠는데 뒤에 열역학인가 나온게 내용을 완전히 이해해야되서 좀 더 어려웠지 않나요? 근데 실수해서 콘크리트 한개 틀리고 열역학 한개 찍어서 맞음ππ

/lealgog

*콘크리트 지문 6문제 15분 걸림...

평타인가요? 아니면 못한 건가요? /젧지젧치기

↳근데 모든 비문학지문 10분 내로 끊으면 시간이 많이 남는데.. 한 지문 정도는 10분 이상 잡고 푸는 게 맞음. 대신 문학 문법은 빛의 속도로 풀고 /수능에순음

☞ ‘고온에서 저온으로의 이동’은 있어도 ‘온도 차이’에 관한 내용은 없다.

③

*18세기에는 열의 실체가 칼로릭(caloric)이며 <칼로릭>은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는 성질을 갖고 있는, 1) **질량이 없는 입자들의 모임**이라는 생각이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1문단]

⇒<칼로릭> 이론에 의하면 (차가운 쇠구슬이 뜨거워지는 것과 상관없이) 쇠구슬의 질량은 없다.1)

④

*18세기에는 열의 실체가 칼로릭(caloric)이며 1) <칼로릭>은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는 성질을 갖고 있는, 질량이 없는 입자들의 모임이라는 생각이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1문단]

⇒칼로릭 이론에서는 반대로, <칼로릭>을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입자1)라고 본다.

▶지문: A에서 B로 →(부적절 선지: B에서 A로)

32. <과학> **오답률: 평가원 4개년 중 14위**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45%	5%	45%	10%	13%	27%

◆정답 ②

*②<칼로릭 이론>에 입각한 카르노의 열기관에 대한 설명이 줄의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하였다. 카르노의 이론에 의하면, <열기관>은 높은 온도에서 흡수한 열 전부를 낮은 온도로 방출하면서 일을 한다. 1)이것(→열기관이 한 일)은 줄이 입증한 <열과 일의 등가성과 에너지 보존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2)<열의 실체가 칼로릭>이라는 생각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해당 부분 다음 맥락에서 정답의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지문 1~2)의 내용을 분석하면,

- 1) <열기관이 하는 일>은 <열과 일의 등가성과 에너지 보존 법칙>에 어긋남 →(원인)
- 2) <열의 실체가 칼로릭>은 성립 안 됨.→(결과)

→<열의 실체가 칼로릭>이 성립 되려면 <열과 일의 등가성과 에너지 보존 법칙>을 만족해야 함. 그런데 <열기관이 하는 일>은 이를 만족하지 못함.

⇒그래서 <열의 실체가 칼로릭>이라면 <열기관이 하는 일>을 설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열기관이 하는 일>이 <열과 일의 등가성과 에너지 보존 법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문장에서 드러난 <원인+결과>의 구조는 정답 선지를 판단하는 유용한 도구가 되는 경우가 많다.

◆헛갈림 주의!

*<열의 실체가 칼로릭> →<열의 실체=칼로릭>

*<열의 실체가 칼로릭>이라는 생각 유지 될 수 없음

→<열의 실체≠칼로릭>

☆전문적인 글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나 비유를 사용해서 내용을 풍부히 하기도 하지만 문장 구조에 대해서는 독자의 이해나 편의에 대해서는 그리 신경을 쓰지 않는다. 간결하고 쉬운 표현보다는 길고 복잡한 겹문장을 사용하면 무엇인가 권위적이고 그럴 듯해 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러한 표현을 단순히 구조화해야만 문제를 수월하게 풀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이후 열과 일뿐만 아니라 1)<화학 에너지>, <전기 에너지> 등이 등가성을 가지며 상호 전환될 때에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입증되었다. [3문단]

⇒<화학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는 서로 전환될 수 있다.1)

*등가성: 가치가 서로 같은 것을 요구하는 상품 교환의 특성.

▶지문: A와 B는 C하다→(부적절 선지: A와 B는 C하지 않다)

③

18세기에는 열의 실체가 칼로릭(caloric)이며 1)<칼로릭>은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는 성질을 갖고 있는,~ [1문단]

*③<칼로릭 이론>에 입각한 카르노의 열기관에 대한 설명이 줄의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하였다.

⇒<칼로릭>은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흐르는 것과 같은 방향성이 있는 성질1)을 갖고 있는 것은 맞지만 ③에서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칼로릭 이론>이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됨을 말하는 것이다.

☞선지 ③은 자체적으로 적절한 말이지만 ③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과 관련된 것(→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은 아니다.

♣그래도 선지 ③도 정답으로써 적절한 것 같다고 여겨지면, 선지 ②와 비교해서 판단해보라. 누가 더 적절한지를. 그래서 문제가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요구한 것이다.

④

*④<칼로릭 이론>에 입각한 ‘카르노’의 열기관에 대한 설명이 줄의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1)카르노의 이론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열은 저온에서 고온으로 흐르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여,~[4문단]

⇒④는 열효율에 관한 ‘카르노의 이론’이 직접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한 것이 아니라, ‘카르노’의 열기관에 설명된 <칼로릭 이론>이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되어) 맞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선지 ④의 내용이 1)에 그대로 나타나 있어 ④에서 이를 직접 나타내는 것처럼 보인다. (*출제자들이 노린 함정임) 대충대충 말고 꼼꼼히 따져보는 습관을 갖자.

♣그래도 선지 ④도 정답으로써 적절한 것 같다고 여겨지면, 선지 ②와 비교해서 판단해보라. 누가 더 적절한지를. 그래서 문제가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요구한 것이다.

⑤

*④<칼로릭 이론>에 입각한 <카르노의 열기관에 대한 설명>이 줄의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카르노의 이론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열은 저온에서 고온으로 흐르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여, 1)<열기관의 열효율>은 열기관이 고온에서 열을 흡수하고 저온에 방출할 때의 두 작동 온도에만 관계된다는 카르노의 이론을 증명하였다. [4문단]

⇒<열기관의 열효율>은 열기관이 고온에서 열을 흡수하고 저온에 방출할 때의 두 작동 온도에만 관계된다는 점1)은 카르노 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써 이는 카르노의 설명을 지지하는 ④의 관점과는 대립적이다.

33. <과학> ☆오답률 2위☆ (평가원 4개년 중 2위)

#보기 제시 #3점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31%	17%	15%	18%	19%	31%

◆정답 ⑤

*1)<열효율>은 열기관이 흡수한 열의 양 대비 한 일의 양으로 정의된다.→(열효율=‘일’의 양/‘열’의 양) [2문단]

*2)<줄>은 이렇게 일과 열은 형태만 다를 뿐 서로 전환이 가능한 물리량이므로 동가성을 갖는다는 것을 입증하였으며, 3)열과 일이 상호 전환될 때 열과 일의 에너지를 합한 양은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사실을 알아내었다. [3문단]

*또한 일이 열로 전환될 때와는 달리, 4)<열기관>에서 열 전부를 일로 전환할 수 없다는, 즉 열효율이 100%가 될 수 없다는 상호 전환 방향에 관한 비대칭성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끝문단]

<보기>

줄의 실험과 달리, 열기관이 흡수한 5)열의 양(A)과 <열기관>으로부터 얻어진 일의 양(B)을 측정하여 B/A로 <열의 일당량>을 구하면, 그 값은 ([가])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지문 1)과 <보기>에 의해,

☞<열효율>=<열의 일당량>= ‘일’의 양/‘열’의 양

일과 열은 서로 ‘동가성’을 갖기2) 때문에 열효율, 즉 <줄>이 구한 열의 일당량이 100%3)이지만 <열기관>의 열의 일당량은 100%로가 아니다.4) 이를 서로 비교해 보면,

(‘열기관’의 열효율) < (‘줄’의 열효율)
 =(‘열기관’의 열의 일당량) < (‘줄’의 열의 일당량)

☞이때, 열기관의 (열의 양과 작동 온도)가 달라져도 열기관의 열효율(→100%미만)은 변함이 없는 수치이다. 왜냐하면, ‘일의 양’이 (열의 양과 작동 온도)로부터 얻어진 상대적 수치이기5) 때문이다.

⇒그래서 <열기관>의 ‘열의 일당량’을 구하면, 그 값은 열기관이 흡수한 열의 양과 두 작동 온도에 상관없이 <줄>이 구한 ‘열의 일당량’보다 작다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열기관>의 작동 온도는 ‘열의 일당량’(→열효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열의 일당량>이 ‘열의 양’으로부터 얻어진 ‘일의 양’을 대비한 것이기 때문이다. ‘열의 양’과 ‘일의 양’의 절대적 수치는 변할지라도 상대적인 ‘열의 일당량’(→열효율)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열기관의 두 작동 온도의 차이에 상관없이 줄이 구한 열의 일당량보다는 작다.

②
⇒열기관이 열을 흡수할 때의 온도와 상관없이 줄이 구한 열의 일당량보다 작다. (정답 해설 참고)

③
⇒<열기관>의 흡수한 열의 양은 ‘열의 일당량’(→열효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열의 일당량>이 ‘열의 양’으로부터 얻어진 ‘일의 양’을 대비한 것이기 때문이다. ‘열의 양’과 ‘일의 양’의 절대적 수치는 변할지라도 상대적인 ‘열의 일당량’(→열효율)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열기관이 흡수한 열의 양과 상관없이 줄이 구한 열의 일당량보다 작다.

④
⇒<열기관>의 작동 온도는 ‘열의 일당량’(→열효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열의 일당량>이 ‘열의 양’으로부터 얻어진 ‘일의 양’을 대비한 것이기 때문이다. ‘열의 양’과 ‘일의 양’의 절대적 수치는 변할지라도 상대적인 ‘열의 일당량’(→열효율)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열기관의 두 작동 온도의 차이에 상관없이 줄이 구한 열의 일당량보다는 작다. (정답 해설 참고)

34. <어휘>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89%	①	②	③	④	⑤
	3%	2%	3%	89%	3%

◆정답 ④

*열과 일의 등가성과 에너지 보존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어긋나다: 기대에 맞지 아니하거나 일정한 기준에서 벗어나다.

*그는 상식에 어긋나는 일을 한 적이 없다.
→(상식이라는 기준에 벗어남)

◆오답 풀이

①

*이를 칼로릭 이론이라 부르는데,

*부르다: 무엇이라고 가리켜 말하거나 이름을 붙이다.

*웃음은 또 다른 웃음을 부르는 법이다.
→(어떤 행동이나 말이 관련된 다른 일이나 상황을 초래하다)

②
*칼로릭 이론에 기반을 두고 다루었다.

*다루다: 어떤 것을 소재나 대상으로 삼다.
*그는 익숙한 솜씨로 기계를 다루고 있었다.
→(기계나 기구 따위를 사용하다)

③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흐르다: 액체 따위가 낮은 곳으로 내려가거나 넘쳐서 떨어지다.
*이야기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어떤 한 방향으로 치우쳐 쏠리다)

⑤
*열은 저온에서 고온으로 흐르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을 것

*생기다: 없던 것이 새로 있게 되다.
*하늘을 보니 당장이라도 비가 오게 생겼다.
→(일의 상태가 부정적인 어떤 지경에 이룸)

“커뮤니티 후기”

*열역학 지문 완전히 이해하고 푸신 분 있나요?
이과나 물리하시는 분들 말고요 9평 때 털렸지만 다시 읽어보고 푸니 맞추긴 하는데 아무리 읽어도 이 걸 완벽하게 이해하긴 좀 어려울 꺼 같은데요.../고대자전17

↳전 문과생인데도 열역학도 어려웠는데 사단법인은 더 어렵...T
/kWtaBA712v196q

↳이해 했어요 16b과학에 비하면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였다
생각해요 /갓철회갓상모갓홍철사대

↳솔직히 이해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답만 맞으면 장땡
/스이긴토

※35~39,

〈사단 법인의 법인격과 법인격 부인론〉

*주제: 사단 법인의 법인격과 법인격 부인론

1)***권리 능력**: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태어나면서 저절로 갖게 되고 생존하는 내내 보유.

***법인격**: 법으로써 부여되는 단체의 권리 능력
***사단**: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한 조직체.
-독자적 실체로서 존재
-운영 기구를 두어,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

***사단 법인**: 법인격을 가진 사단.
→사단의 문제는 사원 개인에게까지 책임이 미치지 않음

2)***회사**: 사단의 성격을 갖는 법인.

***일인 주주 회사**: 사단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만한 형태의 법인을 인정. →'일인 주식회사'는 경영의 주체 모호.

3)***일인 주주 회사의 법인 제도 남용**: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문제가 발생.

***법인격 부인론**: 특정한 거래 관계에 관련하여서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하고 회사와 주주를 동일시.

35. <사회> ☆오답률 7위☆ (평가원 4개년 중 13위)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44%	①	②	③	④	⑤
	6%	17%	20%	13%	44%

◆정답 ⑤

*단체 중에는 1)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한 조직체로서 구성원과 구별되어 독자적 실체로서 존재하며, 운영 기구를 두어,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하는 단체가 있다. 이를 '사단(社團)'이라 하며, 사단이 갖춘 이러한 성질을 사단성이라 한다. 사단의 구성원은 사원이라 한다. 2)<사단>은 법인(法人)으로登記되어야 법인격이 생기는데, 법인격을 가진 사단을 <사단 법인>이라 부른다. 반면에 사단성을 갖추고도 법인으로登記하지 않은 사단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 한다. 사람과 3)법인만이 권리 능력을 가지며, 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격은 엄격히 구별된다. [1문단]

⇒<사단>은 <법인 사단>과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구분2)되는데,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에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준다는 것은 <법인 사단>에만 해당3)하므로 이를 구분하지 않고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에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준다는 것을 사단 제도라고 정의한 선지 ⑤는 적절하지 않다.

☞<사단의 정의>는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한 조직체로서 구성원과 구별되어 독자적 실체로서 존재하며, 운영 기구를 두어,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하는 단체'이다.1)

▶지문: A는 B와 C이다 →(부적절 선지: B는 A이다)

◆오답 풀이

①

*단체 중에는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한 조직체로서 구성원과 구별되어 독자적 실체로서 존재하며, 1)'운영 기구'를 두어,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하는 단체가 있다. 이를 사단(社團)이라 하며, 2)'사단'이 갖춘 이러한 성질을 <사단성>이라 한다. [1문단]

⇒<사단성>을 갖춘 단체2)는 그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기구를 둔다.1)

▶지문: A하는 것은 B이다 →(적절 선지: B는 A한다)

②

*1)'사단'의 구성원은 <사원>이라 한다. [1문단]

*2)회사도 '사단'의 성격을 갖는 법인이다. 회사의 대표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는 3)주식회사는 주주들로 구성되며 주주들은 보유한 주식의 비율만큼 회사에 대한 지분을 갖는다. [2문단]

⇒주식회사도 '사단'의 성격을 갖는 법인2)으로 주주들로 구성되어 있기3) 때문에 그 구성원은 사단의 '사원'1)에 해당한다.

▶2개의 문단의 내용 조합 →(적절 선지: 1개의 겹문장)

③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권리 능력이라 한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저절로 1)<권리 능력>을 갖게 되고 생존하는 내내 보유한다. 그리하여 사람은 2)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가 되며,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권을 누리기도 하고 채무를 지기도 한다.~사람과 3)'법인'만이 <권리 능력>을 가지며, 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격은 엄격히 구별된다. [1문단]

⇒'법인'은 <권리 능력>을 가지며3), 이 <권리 능력>이 있으면1)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2)

▶A하면 B하다+C는 A하다 →(적절 선지: C는 B하다)

④

*단체 중에는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한 조직체로서 구성원과 구별되어 독자적 실체로서 존재하며, 운영 기구를 두어, 1)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하는 단체가 있다. 이를 **사단(社團)**이라 하며, 사단이 갖춘 이러한 성질을 사단성이라 한다. 사단의 구성원은 사원이라 한다. 사단은 법인(法人)으로登記되어야 법인격이 생기는데, 2)<법인격>을 가진 사단을 <사단 법인>이라 부른다. [1문단]

⇒<법인격>을 가진 사단인 '사단 법인'도 결국 <사단>으로써의 특징을 가지므로 <사단> 법인의 법인격은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한다.1)

▶A하는 것은 B이다+C는 B이다 →(적절 선지: C는 A하다)

36. <사회> ☆오답률 1위☆ (평가원 4개년 중 1위)

#공통 선지의 법칙 #이해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26%	26%	37%	13%	18%	6%

◆정답 ①

*상법상 1)회사는 이사로 이루어진 이사회만을 업무 집행의 '의결 기관'으로 둔다. 또한 2)<대표 이사>는 이사 중 한 명으로,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기관이다. [3문단]

⇒<대표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되어2) 업무를 집행하는 '의결 기관'이기1) 때문에 주식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1)<단체> 중에는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한 조직체로서 구성원과 구별되어 독자적 실체로서 존재하며, 운영 기구를 두어,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하는 <단체>가 있다. 이를 '사단(社團)'이라 하며, 사단이 갖춘 이러한 성질을 사단성이라 한다. 사단의 구성원은 사원이라 한다. 2)사단은 법인(法人)으로登記되어야 <법인격>이 생기는데, 법인격을 가진 사단을 사단 법인이라 부른다.[1문단]

⇒<법인격>은 단체의 개념인 '사단'1)이 법인으로登記되어야 생기는 것2)이기 때문에 개인인 <대표 이사>가 법인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일인 주식회사>가 법인격을 갖는 것이다.

③

*그리고 이사의 선임과 이사의 보수는 <주주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3문단]

⇒이사의 보수를 결정하는 곳은 '이사회'가 아니라, <주주 총회>이다.

▶지문: A 하는 것은 B이다

→(부적절 선지: A 하는 것은 C이다)

④

*1)상법상 회사는 이사로 이루어진 <이사회>만을 업무 집행의 의결 기관으로 둔다. [3문단]

⇒주식회사는 상법상 회사이므로 업무 집행의 의결은 '주주 총회'가 아니라, <이사회>에서 이루어진다.1)

▶지문: A 하는 것은 B이다

→(부적절 선지: A 하는 것은 C이다)

⑤

*또 <여러 주주>가 있던 회사가 주식의 상속, 매매, 양도 등으로 말미암아 모든 주식이 한 사람의 소유로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일인 주식회사'에서는 <일인 주주>가 회사의 대표 이사가 되는 사례가 많다. [2문단]

⇒여러 주주들이 모여 설립된 주식회사가 일인 주주의 주식회사로 바뀔 수 있다.

▶지문: A는 B할 수 있다→(부적절 선지: A는 B할 수 없다)

★대단히 유용한 팁★

♣공통 선지의 법칙!

☞ 5개의 선지중 하나의 선지가 산술적인 정답의 확률은 20%이지만 가장 적절한 것을 묻는 최선 긍정 발문형 문제에서 선지의 내용 중 최대 공통점(닮은 꼴)의 한 쌍이 존재하는 경우 그 둘 중 하나의 선지가 정답이 될 가능성은 약 70%이다.

위 문제의 선지 ①, ②가 대표 이사가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다.

- ①대표 이사는 주식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 ②일인 주식회사는 대표 이사가 법인격을 갖는다.☞(정답☆)

그래서 지문과 문제에 상관없이 ①, ②중에서 답이 있을 가능성은 약 70%이다.

▶ 출제자는 정답을 먼저 만들고 이와 유사한 매력 오답을 만든다. 이 과정에서 정답을 닮은 매력 오답이 나올 때가 있다. 수험생은 이를 역이용해 닮은 꼴 선지 쌍의 정답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알고 문제를 푸는 것과 모르고 문제를 푸는 것은 분명 다르다! 문제를 풀 다 자연스럽게 위와 같은 선지가 보인다면 다른 선지보다는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자. 사소한 팁 하나가 문제 풀이 시간을 절약해 1점 더 올릴 수 있는 중요한 보조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자!

37. <사회> **오답률: 평가원 4개년 중 24위**

#문맥상 의미 #이해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56%	6%	4%	9%	25%	56%

◆정답 ⑤

*사람들의 결합체인 단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으로써 부여되는 1)<권리 능력>인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다.→(‘법인격’ 취득을 통해 ‘권리 능력’을 가질 수 있음) [1문단]

*그런데 주주가 한 사람뿐이면 사실상 그의 뜻대로 될 뿐, 이사회나 주주 총회의 기능은 퇴색하기 쉽다. 심한 경우에는 2)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이 대표 이사인 주주에게 귀속되고 회사 자체는 ③허울만 남는 일도 일어난다. [3문단]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이 대표 이사인 주주에게 귀속2)되어 회사의 자산이 감소할 수 있지만 <권리 능력>의 여부는 <법인격> 취득 유무에 달려있는 것1)이므로 취득한 <법인격>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권리 능력>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허울: 실속이 없는 겉모양.

◆오답 풀이

①

*1)사단의 구성원은 사원이라 한다.~사람과 법인만이 권리 능력을 가지며, 2)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격은 엄격히 구별된다. 그리하여 사단 법인이 자기 이름으로 진 빚은 사단이 가진 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지 ③사원 개인에게까지 ④책임이 미치지 않는다. [1문단]

⇒사단의 구성원은 사원1)이기 때문에 ③<사원 개인>은 법인에 속해 있지만 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격은 엄격히 구별2)되기 때문에 법인격과는 구별되는 존재이다.

②

*사람과 법인만이 권리 능력을 가지며, 1)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격은 엄격히 구별된다. 그리하여 2)<사단 법인>이 자기 이름으로 진 빚은 사단이 가진 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지 ③사원 개인에게까지 ④책임이 미치지 않는다. [1문단]

⇒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격은 엄격히 구별1)되며 <사단 법인>이 자기 이름으로 진 빚은 사단이 가진 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것2)이기 때문에 그 ④<책임>도 사단이 진 빚을 갚아야 할 의무에 해당한다.

③

*단체 중에는 1)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한 조직체로서 구성원과 구별되어 독자적 실체로서 존재하며, 운영 기구를 두어,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하는 <단체>가 있다. 이를 ‘사단’(社團)이라 하며, 사단이 갖춘 이러한 성질을 사단성이라 한다. [1문단]

*그런데 2001년에 개정된 상법은 2)한 사람이 전액을 출자하여 일인 주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사단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만한 형태의 법인을 인정한 것이다. [2문단]

⇒<사단>의 의미 중에서 여러 사람이 결합한 조직체1)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지 ③은 적절한 이해이다. ③<사단성>이 포함된 문맥은 여러 사람이 결합된 형태가 아닌, 한 사람의 회사2)이기 때문에 사단성이 없다는 것이다.

④

*단체 중에는 1)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한 조직체로서 구성원과 구별되어 독자적 실체로서 존재하며,~이를 사단(社團)이라 하며, 사단이 갖춘 이러한 성질을 사단성이라 한다. 사단의 구성원은 사원이라 한다. 2)사단은 법인(法人)으로登記되어야 법인격이 생기는데, 법인격을 가진 사단을 사단 법인이라 부른다. [1문단]

*이런 ‘일인 주식회사’에서는 일인 주주가 회사의 대표 이사가 되는 사례가 많다.~법인인 회사의 운영이 독립된 주체로서의 경영이 아니라 마치 ④개인 사업자의 영업처럼 보이는 것이다. [2문단]

⇒<법인격>을 가지려면 여러 사람들이 결합한 조직체1)인 사단이 법인으로登記2)되어야 한다. 하지만 ④<개인 사업자의 영업>은 일인 조직체(→일인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법인격을 가진 독자적인 실체로서 운영되지 않는 경영에 해당한다.

38. <사회> **☆오답률 6위☆ (평가원 4개년 중 12위)**

#3점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43%	9%	17%	7%	24%	43%

◆정답 ⑤

*이때 그 특정한 거래 관계에 관련하여서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하고 1)회사와 주주를 동일시해야 한다는 ③‘법인격 부인론’이 제기된다. 법률은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법원은 권리 남용의 조항을 끌어들이 이를 받아들인다. 2)회사가 일인 주주에게 완전히 지배되어 회사의 회계, 주주 총회나 이사회 운영이 적법하게 작동하지 못하는데도 <회사>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법인 제도가 남용되는 사례라고 보는 것이다.

⇒특정한 거래 관계에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하여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려는 목적은 회사가 일인 주주에게 지배되어 적법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책임을 <회사>에만 떠넘기는 잘못된 사태2)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회사가 져야 할 책임을 회사와 동일시1)하는 일인 주주에게 부담 시키기 위함이다.

◆오답 풀이

①

*이처럼 회사의 운영이 1)주주 한 사람의 개인 사업과 다름없이 이루어지고, 회사라는 이름과 형식은 장식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때 그 특정한 거래 관계에 관련하여서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하고 회사와 (일인) 주주를 동일시해야 한다는 ㉢'법인격 부인론'이 제기된다.

⇒회사의 경영이 이사회가 아닌, 주주 한사람1)에 의해 장악되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이때 그 특정한 거래 관계에 관련하여서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하고 회사와 주주를 동일시해야 한다는 ㉢'법인격 부인론'이 제기된다. 1)법률은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법원은 권리 남용의 조항을 끌어들이어 이를 받아들인다.

⇒㉠<법인격 부인론>은 법률에 규정되지 않았기1) 때문에 당연히 법률의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가 아니다.

▶지문: A는 B하지 않다→(부적절 선지: A는 B하다)

③

*이때 그 특정한 거래 관계에 관련하여서만 예외적으로 1)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하고 회사와 주주를 동일시해야 한다는 ㉢'법인격 부인론'이 제기된다.

⇒회사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확정되면 법원은 ㉠<법인격 부인론>을 받아들여 그 회사의 법인격을 영구히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제한한다.1)

④

*이때 그 특정한 거래 관계에 관련하여서만 예외적으로 1)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하고 회사와 주주를 동일시해야 한다는 ㉢'법인격 부인론'이 제기된다.

⇒㉠<법인격 부인론>은 법원이 대표 이사 개인의 권리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1)하는 것이다.

39. <어휘> ☆오답률 2위☆ (평가원 4개년 중 2위)

#바꿔 쓰기 #한글_한자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31%	63%	31%	2%	2%	2%

◆정답 ②

*사람들의 결합체인 단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으로써 부여되는 권리 능력인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다.

*㉠<갖추다>: 있어야 할 것을 가지거나 차리다.
=<구비하다>: 있어야 할 것을 빠짐없이 다 갖추다.

◆오답 풀이

①

*겸비하다: 두 가지 이상을 아울러 갖추다. ≠ ㉠<갖추다>
⇒그냥 ㉠<갖추>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을 갖춰야 함.

↳<겸비하다> = <두 가지 이상을 ㉠<갖추다>

③

*대비하다: 두 가지의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서로 맞대어 비교하다. ≠ ㉠<갖추다>

④

*예비하다: 필요할 때 쓰기 위하여 미리 마련하거나 갖추어 놓다. ≠ ㉠<갖추다>
⇒㉠<갖추다>에는 필요할 때 쓰기 위함이라는 의미가 없음.

*다가올 시험을 예비하여 공부를 하고 있다.
→(시험 때, 공부한 것을 쓰기 위함)

↳<예비하다> = <~을 대비하여 ㉠<갖추다>

⑤

*정비하다: 흐트러진 체계를 정리하여 제대로 갖추다.
≠ ㉠<갖추다>
⇒㉠<갖추다>에는 흐트러진 체계를 정리하여 라는 의미가 없음.

↳<정비하다> = <흐트러진 체계를 정리하여 ㉠<갖추다>

“커뮤니티 후기”

*이번9평 법인격지문
생각해 보니까 이번 법인격지문 한진해운 저격글 아닌가욤ㅋㅋ
ㅋㅋ 아무리봐도 그렇게 밖에 안보이던데ㅋㅋㅋㅋ/쌩삼설기

↳저격이라기보다 원래 사회이슈 관련 주제 많이 내긴 하죠 ㅎㅎ
ㅎㅎ 인강 강사들도 그걸로 적중시도도 많이 해보고ㅋㅋ/toto27
↳6평 때도 알파고 이슈되니까 인공신경망 나눔/츄릅츄릅

※40~45,

(가) <전기소설의 특징과 성립 과정>

(나) <김현감호>

*갈래: 설화
 *성격: 불교적, 전기적, 비현실적
 *주제: 희생을 통한 사랑의 승화

*줄거리:
 김현이 탐돌이를 하다가 처녀를 만나 정을 통하였는데, 처녀는 인간이 아닌 호랑이였다. 김현이 처녀의 오빠들(호랑이)에게 목숨을 위협받자 처녀가 김현을 구했다. 처녀는 고의로 사람들을 해칠 테니, 오빠들 대신 자신을 죽이고 절을 세워 주기를 청한다. 성 안에 호랑이가 나타나 김현이 호랑이를 잡으려 하니 호랑이가 어제의 그 처녀로 변했다. 처녀는 다친 사람에게 흥륜사의 장을 바르고 나발소리를 들려줄 것을 부탁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현은 벼슬길에 올라 절을 지어 호원사(虎願寺)라 하고 죽을 때에 이 이야기를 전하였다.

*감상의 길잡이
 이 작품은 호원사라는 절의 건립 내력을 밝힌 사원 연기 설화이다. 호랑이에서 인간으로 변신한 여인은 스스로 목숨을 던져서 성 안에 들어온 호랑이가 사람을 해치는 일을 막는다. 김현은 그 아름다운 마음에 감화를 받아 절을 짓고 좋은 업보를 이룬다는 불교적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다.

(다) <이생규장전>

*갈래: 한문 소설, 전기 소설, 애정 소설
 *성격: 전기적, 환상적, 낭만적
 *주제: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간절한 소망과 사랑

*줄거리:
 어느 봄날 이생은 귀족집 담장 너머의 최씨 여인을 보게 된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서로 사랑의 글을 주고받게 되면서 인연을 맺게 된다. 그러나 당시 귀족 집안의 엄격한 규율로는 두 사람의 결합을 허용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를 눈치챈 이생의 아버지가 이생을 먼 곳으로 보내게 된다. 무남독녀 최 여인이 앓아 눕게 되자 부모도 이를 어쩔 수 없는 일로 받아들여 두 사람의 결합을 허락하게 된다. 이생과 여인은 행복한 시절을 보내고자 하였는데, 나라 안의 전란이 발생하여 두 집안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이생은 간신히 목숨을 지켜 집으로 돌아왔으나 여인은 정조를 지키려다 적의 칼에 죽고 만다. 쓸쓸히 집을 지키던 이생에게 아내가 나타났는데, 이생은 그가 죽은 사람인 줄 알면서도 반갑게 맞이한다. 3년 동안 행복한 시절을 보내던 어느 날, 여인은 자신은 이미 죽은 몸이므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음을 알린다. 이생은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여인을 떠났고, 이생도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고 만다.

*감상의 길잡이
 「이생규장전」이라는 제목에는 이생이 담장 너머를 엿본다는 뜻이 담겨 있다. 이야기의 시작은 담장을 사이에 두고 이생과 최씨라는 여인이 연애시를 주고받는 내용이다. 우여곡절 끝에 가정을 꾸리게 되지만, 뜻하지 않게 흉건적의 난을 만나 여인과 사별(死別)하게 된다. 전반부에서 한 편의 영정 소설을 형성한 작자는, 후반부에서는 전기적(傳奇的)인 내용으로 이를 합리화하려 하였다. 삶과 죽음을 뛰어넘는 지극한 사랑을 통해, 이들의 사랑을 좌절시키려는 세계의 횡포를 고발하는 비극성을 지닌다.

40. <설명문>

#이해 #현실성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68%	4%	8%	8%	12%	68%

◆정답 ⑤

*이에 비하면 우리의 1)전기소설에서 기이한 사건은 작가의 불우함을 위로하기 위한 창작 동기에 걸맞게 유기적으로 짜였다. [1문단]

⇒전기소설의 작가는 불우한 처지에 놓여 있는 자신의 삶을 작품 속 주인공을 통해 위로받고자 했다.1)

◆오답 풀이

①

*1)기이한 사건 →(비현실적)은 흥미를 끌기 위한 소재로만 쓰여서, 서사 구조가 유기적이지 못했고 결말의 양상도 다양했다. [1문단]

⇒전기에서 작가는 ‘현실적 사건’이 아닌, 기이한 사건(→비현실적)을 통해 독자들의 관심(→흥미)을 유도1)했다.

*기이하다: 기묘하고 이상하다.

※산문 문학의 현실성 정도에 대해 알아보자!

- ㄱ. 설화: 초(비)현실적인 것이 대부분
- ㄴ. 고전 소설: 초(비)현실적인 비중이 높음.
- ㄷ. 현대 소설: 현실적인 것이 대부분
- ㄹ. 수필: 완전한 현실적인 것

②

*<중국의 전기>는 기이한 사건을 다채로운 문체로 엮은 서사 양식이다.~서사 구조가 유기적이지 못했고 1)결말의 양상도 다양했다. 이에 비하면 <우리의 전기소설>에서 기이한 사건은 작가의 불우함을 위로하기 위한 창작 동기에 걸맞게 유기적으로 짜였다.~결국 2)비극적 종결을 맞이하는 전형성을 보인다. [1문단]

⇒<우리의 전기소설>에만 비극적 종결을 맞이하는 전형성2)을 보여주고 <중국의 전기>는 결말의 양상도 다양1)하다.

③

*<중국의 전기>는 기이한 사건을 다채로운 문체로 엮은 서사 양식이다. 이는 당나라 문인들이 1)자신의 글 솜씨가 담긴 작품집을 출세의 수단으로 삼았던 관습에서 유래했다.~이에 비하면 우리의 전기소설에서 기이한 사건은 2)작가의 불우함을 위로하기 위한 창작 동기에 걸맞게 유기적으로 짜였다. [1문단]

⇒작가가 자신의 글 솜씨가 담긴 작품집을 출세의 수단1)으로 삼기 위해 전기 소설을 창작한 것은 중국의 경우로만 한정된다. 우리의 경우는 작가의 불우함을 위로하기 위해 창작2)된 것이다.

⇒모든(→중국, 우리나라) 전기소설의 창작 동기를 ‘출세의 수단’ 진술한 ③은 적절하지 않다. 물론, ③에는 ‘모든’이라는 말이 없지만 문장의 주체인 ‘전기소설’을 어느 나라로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기소설> 전체를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만약, ③이 다음과 같이 진술되었다면 적절한 선지에 해당된다.

*전기소설은~출세의 수단으로 삼기 위해 창작된 것도 있다.(○)

*전기소설은~출세의 수단으로 삼기 위해 창작되기도 한다.(○)

→(다른 것도 인정하고 ③도 인정하는 양상)

④

*우리나라 ‘전기소설’(傳奇小說)은 중국의 ‘전기’(傳奇)와 우리의 설화 등 다양한 서사 갈래의 영향을 받아 성립했다. [1문단]

⇒<전기>가 <전기소설>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기소설>이 <전기>의 영향을 받아 성립한 것이다.

▶지문: A는 B에 영향 받음

→(부적절 선지: B는 A에 영향 받음)

41. <설명문+설화+교전소설>

#인물

오답률: 평가원 4개년 중 41위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64%	9%	9%	9%	9%	64%

◆정답 ⑤

(가)

*전설과 달리 소설에서 인물은 구체적인 사회 현실에서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고 갈등함으로써 1)인간과 세계는 서로 맞서는 관계로 다루어진다. 가령 「이생규장전」은 사랑하는 남녀가 전쟁 때문에 이별했다가 기이한 방식으로 다시 결연하지만 결국 비극적으로 종결되는 이야기이다. 생사를 초월한 사랑을 통해 2)개인과 세계의 갈등 관계를 형상화한 것이다. [3문단]

▶(가)에서 (다)를 해설한 부분을 통해 쉽게 선지 ⑤가 적절하지 않음을 판단할 수 있다. (*나머지 오답 풀이도 마찬가지)

⇒(다)의 최낭이 이생의 말을 따르지 않고 자취를 감춘다는 점에서 (다)에서 현실의 문제는 <서로 대등하게 맞서는 개인 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개인과 세계의 갈등1~2)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

*셋째는 1)‘소극성’이다. 남주인공은 소심하고 2)나약한 존재로서 3)자신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나 모순된 현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는 않는다. [2문단]

⇒(가)의 해설에 비추어, (나)의 김현은 자신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나 모순된 현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는 않아3) 배필의 죽음을 결국 막지 못하는 나약한 모습2)을 보인다는 점에서 ‘소극성’1)을 지닌 인물임을 알 수 있다.

②

(가)

*전설에서 인물은 특정한 시공간에서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지만 이것은 1)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경이로운 세계의 일부분으로 다루어진다. 가령 「김현감호」는 벼슬에 대한 김현의 간절함에 2)부처(→종교적)가 감동하여 범의 희생으로 응답하고, 김현이 이를 기린다는 이야기이다. [3문단]

⇒(가)의 해설에 비추어, (나)의 범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불법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김현에게 부탁한다는 점에서, (나)에서 갈등 해결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기1)에 종교적 차원에서 모색2)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가)

*1)사랑에 몰두하거나 세상을 등지는 등 세상과 소통하지 않으려는 <폐쇄성>을 통해 모순된 현실에 대한 비극적 인식을 보여 줄 뿐이다. [2문단]

⇒(가)의 해설에 비추어, (다)의 이생은 최낭의 환신과 더불어 지낼 뿐 벼슬을 구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랑에 몰두하거나 세상을 등지는 등 세상과 소통하지 않으려는 <폐쇄성>1)을 지닌 인물임을 알 수 있다.

④

(가)

*첫째는 외로움이다. 주인공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존재이거나 짝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실의에 빠져 있는 존재이다. 1)<외로운> 주인공은 현실에서의 소외를 부당하다고 느껴 온갖 금기를 넘어선 사랑을 하거나 용궁과 같은 이계(異界)에 가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2문단]

⇒(가)의 해설에 비추어, (다)의 최낭은 혼백을 의탁할 곳이 없어서 기이한 방식으로 이생과 인연을 이어 가려 한다는 점에서 <외로움>1)을 지닌 인물임을 알 수 있다.

42. <고전소설> **오답률: 평가원 4개년 중 47위**

#비교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66%	66%	15%	8%	7%	4%

◆정답 ①

(가)

*처녀가 말하기를, “낭군은 그런 말 마십시오. 1)지금 제가 일찍 죽는 것은 천명이며,~
2)드디어 서로 올면서 헤어졌다. →(안타까움 내포)

[A]

3)나도 부인과 함께 황천으로 갔으면 하오

⇒(나)의 남주인공은 여주인공이 스스로 희생1)을 선택한 것을 안타까워2)하고, [A]의 남주인공은 여주인공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마음3)을 드러낸다.

◆오답 풀이

②

(나)

1)이미 조용히 만난 것은 진실로 천행이라고 할 것인데, 어찌 차마 배필의 죽음을 팔아서 일생의 벼슬을 바랄 수 있겠소?”라고 하였다. →(죽지 않고 함께 하길 원함)

처녀가 말하기를, “낭군은 그런 말 마십시오. 2)지금 제가 일찍 죽는 것은 천명이며, 또한 저의 소원이요, 낭군의 경사요, 우리 일족의 복이요, 나라 사람들의 기쁨입니다.

[A]

3)이승에서 함께 오래 살다가 백 년 후에 같이 세상을 떠날 수는 없겠소.

최낭은, 낭군의 수명은 아직 남아 있으나 4)저는 이미 저승의 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어 더 이상 머물 수 없습니다. 만일 제가 인간 세상을 그리워해 미련을 가지면 저승의 법에 위반되고, 죄가 제계만이 아니라 낭군님께도 미칠 것입니다.

⇒(나)의 여주인공(처녀)은 자신의 죽음이 서로에게 이로운 일2)이라며, [A]의 여주인공(최낭)은 자신의 죽음이 저승의 법을 어긴 대가가 아니라, 저승의 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어 계속 인간 세상에 있게 되면 저승의 법에 위반되는 것4)이라며 함께 살자는 남주인공의 말1,3)에 그럴 수 없다고 설득한다.

③

(나)

1)다만 저를 위하여 절을 짓고 불경을 강하여 불법(佛法)을 얻도록 도와주시면 낭군의 은혜는 더없이 클 것입니다.

[A]

2)다만 제 유골이 아무 곳에 흩어져 있으니 은혜를 베풀어 유골을 거두어 비바람 맞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나)의 여주인공은 불법(佛法)을 얻도록 도와달라1)고 했을 뿐이지, 타인과의 관계에서 맺힌 한을 풀어달라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A]의 여주인공은 유골을 거두어 달라2)고 한 것이지만 생전에 자신에게 맺힌 한을 풀어달라는 부탁한 것은 아니다.

☞아무 곳에 흩어진 유골을 ‘한’으로 보기에 조금 아쉽다. 혹, 애매하더라도 (나)의 부분이 확실하게 적절하지 않으므로 선지 ③은 패스할 수 있다.

④

(나)

*김현은 등용된 뒤 1)서천(西川)에 절을 세워 호원사(虎願寺)라고 하고 항상 범망경을 강설하여 범의 저승길을 인도하고, 범이 제 몸을 죽여서 자기를 성공시켜 준 은혜에 보답하였다.

[A]

*이생은 아내가 말한 대로 2)그녀의 시신을 거두어 부모의 무덤 곁에 묻어 주었다.

3)그 후 이생은 최낭을 지극히 생각한 나머지 병이 나서 두어 달 만에 세상을 떠났다.

⇒(나)의 남주인공(김현)은 여주인공(처녀)의 부탁을 실현1)했지만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은 없이 설화는 마무리 된다. 그리고 [A]의 남주인공(이생)은 여주인공(최낭)의 부탁을 실현2)하지만 사회로부터의 소외감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여주인공 생각에 병이나 죽게 된다.3)

⑤

(가)

*김현이 대궐로 들어가서, “소신이 잡을 수 있습니다.”라고 아뢰자, 1)임금이 우선 벼슬을 주어 그를 격려하였다.

[A]

*그 후 이생은 2)최낭을 지극히 생각한 나머지 병이 나서 두어 달 만에 세상을 떠났다.

⇒(나)에서 임금이 준 벼슬1)을 사양했다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남주인공은 벼슬을 받아 생활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세속적 삶에 희의를 느끼며 속세를 등진다고 볼 수 없다. (*벼슬은 곧 세속을 의미함) 그리고 [A]의 남주인공은 상사병으로 죽었기 2) 때문에 세속적 삶의 무의미함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고 볼 수 있다.

☞(사랑의 감정=세속적), 사랑은 이루어져야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이루지 않아 그리움이 병이 되는 것을 '무의함'으로 보는 것이다.

*세속적: 세상의 일반적인 풍속을 따르는 것.

→사전적 의미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중립적인 성격이지만 문학 작품에서는 보통 피해야 할 부정적인 것으로 자주 사용된다.

43. <고전소설> **오답률: 평가원 4개년 중 33위**

#이해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62%	62%	7%	9%	11%	11%

◆정답 ①

*가령 「김현감호」는 1)벼슬에 대한 김현의 간절함에 2)부처가 감동하여 범의 희생으로 응답하고, 김현이 이를 기린다는 이야기이다. ①**개인의 욕망을 포용하는 부처의 전능함을 형상화**한 것이다.

(나)

*김현이 대궐로 들어가서, “소신이 잡을 수 있습니다.”라고 아뢰자, 3)임금이 우선 벼슬을 주어 그(김현)를 격려하였다. [4문단]

⇒처녀가 자신의 죽음을 <낭군의 경사>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낭군의 경사>는 임금에게 벼슬을 받는 것으로 실현3)되어 벼슬에 간절한 김현1)에 대한 부처의 감동2)이 응답으로 암시된 것이다.

◆오답 풀이

②

(나)

*다음 날 과연 1)사나운 범이 성 안으로 들어왔는데,→(김현이 벼슬을 받게 되는 계기) 매우 사나워 감당할 수가 없었다. 원성왕이 이 소식을 듣고 범을 잡은 자에게는 벼슬 2급을 주라고 하였다. 김현이 대궐로 들어가서, 2)“소신(김현)이 잡을 수 있습니다.”라고 아뢰자, 3)임금이 우선 벼슬을 주어 그를 격려하였다.

[4문단]

⇒매우 ‘사나운 범’이 사람들을 해치는 장면은 김현 개인의 욕망 실현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그로인해 김현이 범을 잡으려2)하고 임금은 이에 벼슬을 내렸기3) 때문에 오히려 욕망(→벼슬)을 실현시키는 계기1~2)가 된다.

③

(나)

*김현이 단도를 지니고 숲 속으로 들어갔다. 1)범이 처녀로 변하여 반갑게 웃으면서, “간밤에 낭군과 함께 마음속 깊이 정을 맺던 일을 잊지 마십시오.

이에 처녀가 김현의 칼을 뽑아 스스로 목을 찢러 쓰러지니 곧 범이었다. 김현이 숲 속에서 나와, 2)“지금 범을 쉽게 잡았다.”라고 소리쳤다. [5문단]

⇒김현과 범 사이의 긴장감이 해소되는 부분은 범이 처녀로 변하여 김현을 만날 때1)부터 시작되어 김현이 범을 잡는 것2)으로 마무리 된다.

④

*가령 「김현감호」는 벼슬에 대한 김현의 간절함에 부처가 감동하여 범의 희생으로 응답하고, 김현이 이를 기린다는 이야기이다. ①**개인의 욕망을 포용하는 부처의 전능함을 형상화**한 것이다.

⇒임금이 김현에게 ‘벼슬을 주어’ 격려하는 장면은 ①과 같이 부처의 전능함을 실현하려 것이지 임금 개인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만약, ①이라는 조건이 없이 선지 ④가 <임금이 김현에게 ‘벼슬을 주어’ 격려하는 장면은 임금 개인의 의지를 드러낸다>고만 한다면 적절할 수 있는데 ①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④는 적절하지 않다.

⑤

*가령 「김현감호」는 1)벼슬에 대한 김현의 간절함에 2)부처가 감동하여 범의 희생으로 응답하고, 김현이 이를 기린다는 이야기이다. ①**개인의 욕망을 포용하는 부처의 전능함을 형상화**한 것이다.

⇒부처가 감동2)하는 계기는 남녀의 기이한 만남 때문이 아니라, 벼슬에 대한 김현의 간절함1) 때문이다. 그리고 범이 김현 앞에서 ‘처녀로 변하여 반갑게 웃’는 이유는 처녀의 뜻대로 일이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44. <고전소설>

#감상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77%	5%	6%	7%	77%	5%

◆정답 ④

(가)

*가령 「이생규장전」은 사랑하는 남녀가 전쟁 때문에 이별했다가 기이한 방식으로 다시 결연하지만 1)결국 비극적으로 종결되는 이야기이다. [끝문단]

(다)

*어느덧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밤에 최낭은, “세 번 가약을 맺었건만, 세상일은 뜻대로 되지 않나 봅니다. 즐거움도 다하기 전에 2)슬픈 이별이 닥쳐왔습니다.”라고 말하고는 오열하였다. [지문중반]

⇒최낭이 이생에게 ‘세 번 가약을 맺었건만, 세상일은 뜻대로 되지 않나 봅니다’라고 한 뒤 이별을 말하며 오열2)하고 결말이 비극적으로 끝났다1)는 해설을 통해서, 현세에서 좌절된 사랑을 저승에서 완성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①

*장차 백년해로의 낙을 누리려 했는데 어찌 1)횡액(橫厄)을 만나 구렁에 넘어질 줄 알았겠습니까? 2)이리 같은 놈들에게 정조를 잃지는 않았으나, 육체는 진흙탕에서 찢겼사옵니다. 절개는 중하고 목숨은 가벼워 해골은 들판에 던져졌으나, 혼백을 의탁할 곳이 없었습니다. [지문초반]

⇒최낭이 ‘횡액을 만나 구렁에’ 넘어졌다1)고 하는 것에서, 주인공들의 사랑이 외부적 요인2)에 의해 좌절되었음을 알 수 있다.

*횡액: 뜻밖에 닥쳐오는 불행.

②

*장차 1)백년해로의 낙을 누리려 했는데 어찌 횡액(橫厄)을 만나 구렁에 넘어질 줄 알았겠습니까?~당신과 그날 깊은 산골짜기에서 헤어진 뒤 속절없이 ‘짜 잃은 새’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문초반]

⇒최낭이 ‘깊은 산골짜기에서’ 이생과 이별한 자신을 ‘짜 잃은 새’로 표현하는 것에서, 백년해로의 낙을 누리지 못하고1) 사랑을 잃은 여주인공의 슬픔을 알 수 있다.

③

*이제 저의 환신은 이승에 돌아와 1)남은 인연을 맺어 옛날의 굳은 맹세를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려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생은 매우 기뻐하고 감사히 여기며, “그것이 원래 나의 소원이요.”라고 대답했다. 둘은 말을 주고받았다. [지문초반]

⇒‘굳은 맹세’를 지키자는 최낭의 말에 이생이 ‘그것이 원래 나의 소원’이라고 대답하는 것에서, 사랑을 지속1)하고 싶었던 남녀주인공의 마음을 알 수 있다.

⑤

*최낭은, “낭군의 수명은 아직 남아 있으나 저는 이미 저승의 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어 더 이상 머물 수 없습니다. 만일 1)제(최낭)가 인간 세상을 그리워해 미련을 가지면 저승의 법에 위반되고, 2)죄가 제계만이 아니라 낭군님께도 미칠 것입니다. [지문후반]

⇒최낭이 자신의 ‘죄’1)가 ‘이생’에게도 미칠 것2)을 염려하는 것에서, 남주인공의 안위를 우선시하는 여주인공의 사랑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다.

45. <고전소설> 오답률: 평가원 4개년 중 22위

#이해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54%	54%	10%	15%	10%	11%

◆정답 ①

(가)

*외로운 주인공은 현실에서의 소외를 부당하다고 느껴 온갖 금기를 넘어선 사랑을 하거나 용궁과 같은 이계(異界)→(현실과 다른 세계)에 가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2문단]

(다)

*이튿날 부부는 가산을 물어 둔 곳을 찾아갔다. 그곳에는 1)금은 몇 덩이와 약간의 재물이 있었다. 그들은 양가 부모의 유골을 거두고 금은, 재물을 팔아→(현실 세계의 일) 각각 오관산 기슭에 합장하고는 나무를 세우고 제사를 드려 모든 예를 다 마쳤다. [지문중반]

⇒‘가산을 물어 둔 곳’을 찾아가 금은과 재물을 가져오는 행위1)는 현실에서 이루어지므로 이계(→현실과 다른 세계)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②

(가) *전기소설은 금오신화를 통해 소설사에 안착했고, 금오신화는 현실의 문제를 드러내는 ㉠**다양한 소설적 면모**를 보였다.~금기에 도전하는 애정 추구의 구도와 1)**능동적인 여인상** 그리고 애정 교류의 매개로써의 시의 활용은 애정 소설로 이어졌다.

(다) *이제 저의 환신은 이승에 돌아와 2)**남은 인연을 맺어** 옛날의 굳은 맹세를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려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문초반]

⇒능동적 여인상1)은 최낭의 ‘환신’이 이생에게 ‘남은 인연’을 맺자2)고 제안하는 데에서 나타나고 있다.

③

(가) *전기소설은 금오신화를 통해 소설사에 안착했고, 금오신화는 현실의 문제를 드러내는 ㉠**다양한 소설적 면모**를 보였다.~1)**금기에 도전하는 애정 추구**의 구도와 능동적인 여인상 그리고 애정 교류의 매개로써의 시의 활용은 애정 소설로 이어졌다.

(다) *이야기를 마치고 함께 취침하니 2)**기쁜 정은 옛날과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 이튿날 부부는 가산을 묻어 둔 곳을 찾아갔다. [지문중반]

⇒금기에 도전하는 애정 추구1)는 이생이 최낭의 ‘환신’과 옛날과 다름없이 ‘기쁜 정’을 누리는 데2)에서 나타나고 있다.

④

(가) *전기소설은 금오신화를 통해 소설사에 안착했고, 금오신화는 현실의 문제를 드러내는 ㉠**다양한 소설적 면모**를 보였다.~사대부 남성이 이계를 체험하고 돌아오는 구도는 몽유록 소설로, 1)**이원적 공간 구도**는 (하늘에서 땅으로) 적강한 영웅의 일생을 다룬 영웅 소설로 계승되었다.

(다) * 최낭은, “낭군의 수명은 아직 남아 있으나 2)**저는 이미 저승의 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어 더 이상 (이승에) 머물 수 없습니다**. [지문후반]

⇒이원적 공간 구도1)는 최낭의 ‘환신’이 ‘이승’에 있음에도 ‘저승의 법’을 따라 ‘황천’으로 가야 한다2)는 데에서 나타나고 있다.

⑤

(가) *전기소설은 금오신화를 통해 소설사에 안착했고, 금오신화는 현실의 문제를 드러내는 ㉠**다양한 소설적 면모**를 보였다. 금기에 도전하는 애정 추구의 구도와 능동적인 여인상 그리고 1)**애정 교류의 매개로써의 시의 활용**은 애정 소설로 이어졌다.

(다) *“장차 백년해로의 낙을 누리려 했는데~옛날의 굳은 맹세를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려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생은 매우 기뻐하고 감사히 여기며, “그것이 원래 나의 소원이요.”라고 대답했다. 2)**둘은 말을 주고받았다**.

⇒시가 애정 교류의 매개로 활용1)되는 것은 이생과 최낭이 ‘시를 지어 주고받’2)는 데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생과 최낭이 주고받는 것이 뚜렷하게 시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다. 시의 본질적인 특성인 운율을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시로 볼 여지가 있는 것은 비유적 표현(짜 잃은 새)과 깊은 감정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조금 애매하다고 붙들고 늘어지면 자신만 손해이다. 선지 ①이 객관적으로 확실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선지를 깊이 파고들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커뮤니티 질문”

*9평 김현감호에서 범=처녀 인거 모르고 문제 틀린 사람 있음? "범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불법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거 보고 에이 무슨 범이 그랬어 처녀지! 하고 밑에 보지도 않고 손가락 걸었다 잘렸는데...역시 선지는 끝까지 보는 게 답인가 /mAr0uzNULRes9X

☞선지에 대한 정답의 확신을 80%이상 했다면 선지를 끝까지 보지 않고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길 권한다. 모든 문제의 선지를 끝까지 본다면 분명 시간이 빠듯해 마지막 몇 문제는 제대로 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Q. 국어 45번 질문.. 제가 마지막 지문 45번만 틀렸는데요..(가)에 이원적 공간 구도는 적강한 영웅의 일생의 다룬 영웅소설로 계승된다고 되어있어서 1번도 틀린 선지인거 같다고 생각했지만 최낭=영웅 이라는 등식이 성립이 안 되다 보니까 4번 찍었는데요 소설에서 등장인물은 영웅으로 봐야하나요? 이생규장전은 영웅소설이 아니지 않나요? 살짝 아리까리 하네요..

☞이생규장전은 영웅소설이 아니며, 이원적 공간 구도라고 해서 모두 영웅소설로 계승된다는 말이 아니다.

“2017 9월 평가원 후기”

★<크아아아양>님의 이과 재수생 9평 후기

국어..
종이 매수? 확인할 때 슬쩍 보니 비문학 큰 거 세 개가 뒷 쪽에,
문학들이 앞과 뒤에 너저분하게 떨어져 있었음. 익숙한 대로 비
문학 먼저 풀까 고민하다가 그러면 왠지 시간에 쫓길까 같아서
순서대로 풀겠다 다짐!

화작문부터 넘나 어려운 시험이었음..ㅠㅠㅠ 계속 별표치며 넘어
감.. 아리까리 하고 헛갈리는 게 너무 많았음..11, 13틀림 ㅠㅠㅠ
문법공부를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낌. 고전시, 수필..여기까지
도 무난무난. 독짓는 늑은이 이거 왕 헛갈렸지만 일단 다 맞기는
함. 콘크리트 .. 글 읽는 호흡량이 쯤 떨어져서 글을 대충 큼지막하
게 나누고 문제를 부분 부분 풀어나감. 열효율문제는 상대적으로
짧아서 행복..법인격도 상대적으로 짧아서 행복할 뻔했는데 두개
나 틀렸음 ㅠㅠㅠ35번과 어휘문제인 39번 ..ㅠㅠ분명 여기까지
다 풀었을 때 20분이 남았었는데 뒤에 엄청나게 큰 지문을 보고
압도당함..이건 한 번에 다 못 읽겠다 싶어서 짚끔 읽고 짚끔 풀
고 이랬음. 결과는 11, 13, 35, 39 틀려서 92

★<Aster>님의 후기

종이 치자마자 시험지를 딱 넘겨서 문제를 풀기 시작함
며칠 전에 해소되던 난독증이 또 도지는 느낌이라 속발음을 하
면서 문제를 풀음
화작은 무난하게 해결함 그리고 6평때 충격과 공포를 줬던 문법
비문학도 상상모의로 어느 정도 적응해 괜찮게 풀음
그리고 문제의 15번 무..무정명사? 유정명사? 당황함. (마)에 부사
격 조사 같아서 5번 찍음
난 보통 문법까지 다 풀고 바로 맨 뒤에서 부터 푸는 성격이라
15번에 시선이 쏠려있는 나머지 옆에 문학 있는걸 못보고 바로
맨뒤로 넘김. 지문이 없네? 한 장 넘김. 오우 지저스. 지문 왜 이
따구야. 마지막에 해야지 하고 한 장 더 넘김?!?!?!? 왜 비문학?
아 이럴 바엔 그냥 비문학 첨부부터 풀어야겠다 싶어서 다시 앞으
로 감. 이번엔 문학이?!

풀다보니 순서가 뒤죽박죽인걸 알 수 있었음
약점 중 하나였던 고전시가를 무난히 넘기고 두개의 짧은 수필?
소설? 을 푼 뒤 다음 글로 넘어감. 오 오랜만의 극문학임. 읽다
가 속으론 엄청 웃으면서 풀음
비켓! 닥쳐! 안 됩니다 성한 것도 있어요! 이건 모두 부정을 탓
어! 와장창! 한참 속으로 웃으면서 읽어서 그런지 21번부터 막
힘. 엇 젠장 집중해야되는데 망했다. 영? 조수의 환영이 있었던
가. 아마 여기서부터 슬슬 깨지기 시작한듯
그리고 대망의 콘크리트...
와나 무슨 이걸 전공서적인가 싶더라
시간관리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십오분정도 아니 그이상 끈거같
음. 앞에서 독이 와장창 깨지더니 여기서 맨탈이 와장창 깨지더
라. 젠장 현실에서의 복선이라니 완전 그뒤로 해롱해롱 거리면서
풀었음 비문학 지문 맨뒤에 경제는 아예 다 찍었고 흑흑..

★<카오나시>의 후기

잉 화작 딱 긴장감 유지하기 좋은 난이도군.
어머 문법 또 이리 나왔어 일단 넌 맨 뒤로 뺀다
다른 문법은 겁나 쉽네 호호
뭐야 고전 문법... 내가 아는 객체 선어말어미는 '잡' 뿐인데...
아니 왜 문학부터 나오지 일단 비문학부터
음 철근 그래 콘크리트 그래
뭐야 그림 문제 왜 답이 3개야 일단 5번이 확실하니 이것부터
(알고 보니 지름을 높이로 나눠야하는데 반대로 함ㅎ여기서 시간
너무 잡아 먹음)
줄...칼로릭...
두 번째 문제는 잘못 이해해서 틀렸고 세 번째는 강 틀림
우옹 권리능력 사단법인 그래그래
꿀잼을 느끼며 속속 풀었음
뭐야 고전소설이네 순서 왜이래
잉 뭐야 비문학이네?!?!?!
시간이 없어서 겁나 빨리 읽기 시작 내 경험상 이런 문제는 쉬
웠다. 이 여자가 이미 죄를 지은거야 지을까 두려운 거야 한참
고민함. 그렇게 비문학까지 클리어 하긴 했는데 문법 세문제랑
문학 전부 남겨두고 15분 남음.
고전시가는 이지했고 현대시 마지막 문제 진짜 강 끌리는거 고
름. 그래놓고 또 고민함 대체 맞는 답 고르고 왜 고민하니 독 짓
는 늑은이도 맞는 답 고르고 계속 고민함. 역시 이래서 문학은
뒤에 풀어야함. 괜히 시간 많으면 맞는 답 골라놓고 고민하느라
시간 쓰고 틀림. 문학 다 풀고 나니깐 3분 남아서 일단 마킹하고
못한 문법 풀러감. 지문 있는거 읽다가 세 문제 다 틀릴거 같아
서 고전부터 아까는 안보인 5번 선지가 답인게 보임
종치기 10초 전이라 지문있는 건 강 23으로 찍음.
첫 번째 꺼는 맞고 두 번째 꺼는 틀렸는데. 둘 다 지문 안읽고
풀 수 있는거였어서 좀 허탈했음. 91점

2회

2017 6월 평가원

정답

1. ㉓	2. ㉑	3. ㉕	4. ㉑	5. ㉒
6. ㉔	7. ㉕	8. ㉕	9. ㉒	10. ㉓
11. ㉒	12. ㉑	13. ㉕	14. ㉓	15. ㉑
16. ㉓	17. ㉕	18. ㉓	19. ㉓	20. ㉕
21. ㉕	22. ㉓	23. ㉒	24. ㉑	25. ㉔
26. ㉓	27. ㉔	28. ㉔	29. ㉑	30. ㉔
31. ㉓	32. ㉒	33. ㉔	34. ㉓	35. ㉔
36. ㉔	37. ㉓	38. ㉕	39. ㉑	40. ㉕
41. ㉓	42. ㉕	43. ㉒	44. ㉕	45. ㉒

영역별 평균 정답률

영역	정답률
종합	69%
화법+작문	89%
문법	50%
독서 (비문학)	61%
문학	76%

등급컷

등급	원점수	비율(%)
1	90	4
2	83	11
3	74	23
4	65	39
5	54	59
6	41	77
7	28	89
8	19	96

오답률 TOP 7 문항

순위	문항 · 영역	제재	평가원 4개년 중
1위(66%)	23번 인문	유비논증	4위
2위(63%)	12번 문법	고전탐구	7위
3위(59%)	13번 문법	음운변동	8위
4위(58%)	18번 과학	인공 신경망	10위
4위(58%)	19번 과학	인공 신경망	10위
6위(43%)	41번 현대소설	삼대	26위
7위(41%)	11번 문법	고전탐구	28위